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0호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振 / 편집주간 許璫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새해
복
많이
받으
세
유!

以石 林頌義 作 「林深無碍」



한나라당 崔秉烈대표



민주당 趙鉉衡대표



열린우리당 金敬烈대표

-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대표 인터뷰 4~5면
- 원숭이 떠 동문 10인의 신년 소망 6~7면
- 서울대 가족 文旭熙 前대구초교 교사 18면
- 화제의 동문 全在星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23면
- 나의 건강법 朴相高 Camp Nabe 캠프호스트 24면

만든 논설위원 金齊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綱,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柄璫, 李元龍, 安國正, 사담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신년사

멸사봉공·대동단결의 자세로 지혜와 역량 결집할 때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경애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23년 동문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라며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모교와 동창회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교는 鄭憲燮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거듭한 결과 SCI 지수 순위가 34위로 오르는 등 세계의 「Top 10 대학」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금자탑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동창회도 교유의 목적 사업에 전념하여 동창회보 3백호 기념 CD를 발간, 관악연인회 창립, 지속적인 장학생전 전개 등을 비롯하여 격조 높은 가족동산대회를 통해 서울대인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동창회관 신관 건립 부지 신장을 위한 중지를 모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성취를 가능케 한 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과 각계 동문들의 참여와 열정에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해방 직후기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인내와 협동으로 황무지 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추풍을 불어하는 한국 최고의 대학을 이룬 것처럼 통일 조국을 눈앞에 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를 서둘러 세계 속의 명문대로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우

뚝 세우기 위하여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甲申年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 국가적으로 거센 도전과 벅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등 열강들은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너무 지난 일만에 매달려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서울대대들은 국가와 민족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藏私奉公과 大同團結의 자세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울대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시선 또한 따갑습니다.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진과 진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그리고 자기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는 스스로의 품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래알 같은 흩어지기 쉬운 서울대인이 아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청학정신의 네트워크를 더 크고 더 넓게 확대해 나가는 동문이 됩시다. 그리고 언제나 모교와 조국의 부름에 선두에 서서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서울대인이 됩시다. 동문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판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자기 혁신의 노력 배가하길...

서울대학교 鄭雲燮총장

전해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2004년 甲申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늘따라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제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신 성취하시기를 빌 소합니다.

지난 2003년을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상황은 긴 침체의 터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연일 들려오는 정치부패의 실상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출하는 다양한 이해들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채 첨예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교육문제의 난해함과 그 해결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부각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서울대학교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았고, 우리 대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지난 한 해를 「어려운 여건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먼저 수의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이 판악캠퍼스로 이전해 올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의 차우와 복지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자제하고 쾌적한 교정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총장공관을 현기



하여 교수아파트 확충을 위한 터를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이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의회를 비롯한 학

내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체제를 민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발전과 개혁을 위한 중지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늘 비판되어 온 단과대학 중심주의와 학과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서, 발전의 길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학내 의견수렴의 공식적 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서울대학교는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높아 가는 우리 대학에 대한 기대와 비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혁신의 노력을 배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희생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전해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올해는 원승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원승은 창의성과 협동심의 동물이요, 힘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창의성과 협동심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서울대학교를 모두에게 만들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자제하고 쾌적한 교정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총장공관을 현기

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총장공관을 현기

관약출주

술末年이 가고 甲申年의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고 시끄러웠던 한 해였다.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심하게 막을 내렸다. 뉴스위크지는 올해의 인물로 전광석화 같은 새로운 전쟁기술을 선보인 미군을 선정했다. 안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도 꽤 요란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측근들의 비리 실수 등이 연발하다니 끝내 대통령이 직접 재신임을 문졌다든 한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늘 그랬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와 정치권은 일년 내내 치고받는 공방전을 펼쳤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과정에서는 혐의영화를 방불케 하는 차떼기라는 수법이 밝혀져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심한 진통을 겪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을 위기로 몰아넣은 운송업체

파업에서부터 군수가 폭행을 당하고 장관을 감아치른 부안사태에 이르기까지 편안함 구역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는 끝없이 들고 진이 빠졌다.

동북아경제중심지라는 거창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지고 대학문을 나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더기로 실업지로 전락하는 안타

깨어있는 서울대인을 만드는 동창회

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4백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와 함께 카드산업의 부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솟는 아파트값과 부동산경기부진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집값을 때는 기현상에서 난해한 한국경제의 단면이 드러난다.

그래도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다.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

전이 있길 기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사정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수출 호세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 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흥선이라는 정치현상도 치러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자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전리로 돌아가야 한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동창회도 지난해의 실적과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 혼란과 갈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지에서 동창회가 깨어있는 서울대인을 위한 각성제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자면 동창회가 서울대인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서울대와 서울대인 그리고 동창회에 보탬이 한 해가 되소서!

(龍)

정치 관련 특집

2004년 정치권의 관심사는 4월 15일에 개최될 국회의원 선거이다. 본보는 甲申年 새해 특집으로 동문인 한나라당 崔秉烈(64년 法大卒)대표, 새천년민주당 趙舜衡(64년 法大卒)대표, 열린우리당 金權泰(72년 商大卒)원내대표에게 서면 공의를 통해 각 당의 총선 전략, 바람직한 정국운용 방안, 정치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의석 수에 따라 답변 게재함)

“정치 개혁·정치 선진화, 우리 동문에게 달렸다”

— 4월 총선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崔秉烈대표=지금 우리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가야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매듭짓고 나서야 국민에게 표를 달래도 달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빌가벗고 국민 앞에 나아가야 맞을 것 맞고, 처벌받을 것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야 갈수록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정면돌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정말 뼈저린 반성과 참회 위에서 거듭 태어나겠습니까. 깨끗한 정치, 돈 안 쓰는 선거에 앞장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국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 출선에 나설 것입니다. 뼈를 깎는 일을 감내하고 다시 태어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를 내놓아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趙舜衡대표=우선 당 조직복원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현정사상 여당 국회의원의 집단탈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는데 이는 당원에 대한 배신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능력과 도덕성이 겸준된 인사의 영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리라 자신합니다.

金權泰원내대표=이번 4·15총선은 신뢰의 위기에 빠진 정치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당은 부패정치청산과 지역주의 극복의 정당정식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제3의 정치혁명, 즉 「의회권력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낚은 정치에 맞선 「새 정치」로, 기득권 유지 세력에 맞선 「개혁」으로, 지역분열주의에 맞선 「국민통합」으로, 수구년정권에 맞선 「평화와 통일 지향」 정책으로 임할 것입니다.

—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새 인물 공천 측, 물갈이론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崔秉烈=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여분초사를 해보면 어느 당이건 사람을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趙舜衡=앞서 밝힌 대로 사회 제분야에서 능력과 도덕성이 겸준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망받는 인사들의 영입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 崔秉烈 대표



새천년민주당 趙舜衡 대표



열린우리당 金權泰 원내대표

“정치개혁 핵심은 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金대표=지난 대선에서 상향식 후보선출의 모범을 창출했던 우리당은 이미 당헌·당규 상에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함으로써 후보선출의 권리를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천심사의 투명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용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은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입니다.

—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돈 안 쓰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崔대표=지금 이 시대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를 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방향도 이번 기회에 지난 50년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돈 안 쓰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당과 후원회를 폐지하고,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 등도 없애 돈이 들어갈 곳을 원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정치자금의 흐름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당을 없앤다면, 후원회 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추진하려는 정치개혁은 우리 나름대로는 정치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밖에 부딪혔다.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면으로 죽어서 산다는 각오로 나가지 하는 이런 절박

“경제·민생 중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 예정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趙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주업무가 되어야 하나, 우리 정치현실은 당내 정치에 큰 비중이 두어져 왔습니다. 다선이 되면 당직도 가져야 하고 계보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큰 돈이 들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되리라 봅니다.

金대표=저 개인적으로 2002년 3월 3일 양심교백을 하면서 모진 정치적 시련을 겪었던 터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선관위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내놓은 정치자금투명화 방안들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당 자체적으로도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정당회계의 투명화를 실현하였고 원내운영과 관련하여도 교섭단체 등록이후 모든 수입 지출 내역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불합리한 정치자관행에 대한 해법으로 만델라식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델라 모델은 돈 안 들고 2004년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델라 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한 것에 대해 특검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검수사후 처리문제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방식의 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권력 교체로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 총선이후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정치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崔대표=정치는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원내 제1당이나, 어느 당이 과반수를 넘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 당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 다수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어찌할까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의해 뽑힌 국회를 무시한데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내 편, 내 편 가르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와 통합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趙대표=지금 당장 급한 것이 민생문제와 경제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을 중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金대표=현재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훨씬 넘게 점유하고 있는데 정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치안정은 「의석 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어떤 정치세력이 의회에 다수 진출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정부와 대

통령의 정책에 대해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다면 국정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정당당파하게 정부정책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한편으로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한다면 다소간의 정부와 의회의 이견은 오히려 국정의 원활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정이 분리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시대에는 정몽준 수석여이 의회권력을 획득해야 정치의 변화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계승출애 이은 제3의 정치혁명으로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서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안정은 자연스레게 이뤄진 것입니다.

— 개헌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崔대표: 우리는 항상 그때 그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채용환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한다든가, 돈 안 쓰는 정치를 실현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요즘 많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는 '진부 아니면 건국(all or nothing)'의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결코 선하게 이끌어 주고, 그래서 돈이 많이 쓰여지고 그것이 부패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바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상황과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략적 계산이나 정치적 술수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선을 치르고 나서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또 요즘 많이 거론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든 어떤 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진지하게 논의해 그 결과를 놓고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趙태표는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을 기본정책으로 추진한 만큼 총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개헌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책임총리제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대요=아담에 의한 한형 대동령제에 대한 개헌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항상 국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됨에 따라 공상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개헌론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문헌적 대동령제나 책임총리제가 아담에 의해 제정되고 있는 데 국민들은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한형 대동령제는 3권분립 정신이 충후부림 바탕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의 3권분립 원칙하에서 진지하고 차분하게 검토될 문제이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익적 관점이 절대적으로 요청됨은 물론 국민적 총의가 전제될 사안이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라는 점을 명할

히 해두고자 합니다.

- 민생을 위한 경제부양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시오.

崔태표=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2%대의 성장률에 그쳐 IMF 시절 보다 더 어렵다는 최악의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륙도」(56세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들),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 조기퇴직)도 부족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놓겠다
개헌 “시기상조” “추진 신중” “불필요”
깨끗한 정치 펼쳐 신뢰 회복할 터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
자리가 생겨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야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노사 안정, 각종 규제의 철폐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뚜렷한 원칙도, 정책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를 살릴 의지가 찾아보기 힘들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잘못만 지적당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일차 원인이 공직적인 책임 과잉과 그것을 타개하고 극복하여 해를 헤쳐나갈 대통령이 계 있습니다. 정체를 살피고 인생을 가수처럼 신장한 담판 협안을 정치는 가운데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옳은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의수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는 **金剛經**수기경의 말씀이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 **순대표=** 금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스파동, 북핵위기, 태풍대미 피해, 환율·유가충격 등 예상치 못한 연이은 악재들로 인해 경기회복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취업자수도 작년엔 비해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도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출이 산발기에 이어 한반

기에도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각종 경기지수들 또한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뚜렷한 편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국은 내수부진이 현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금리는 충분히 낮은 수준
으로 추가 인하시 시중부동자금의 부동
신통기로 이동 및 유동성 함집에 빠질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은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의 역할 강화에 초
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 2004년 예산을 적극재정으로 편성

명문화된 법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金태표 =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 이제는 환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밀한 지하주자장에서 소권백으로, 어둠 절란 고속도로에서 차떼기로, 백주에 채권 책포장으로 수백억의 불법자금을 강탈한 사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서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진실한 반성이요 양심 고백을 하지 않고서 신위를 받기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불신의 정치를 이대로 두는 것 경정령을 갖춘 21세기를 열어야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권이지만 부패지는 세계 50위권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 지수 또한 25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의 열린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열린 리더십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 새 정치를 펼쳐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이미 외부계제입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 재정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고선 단계 등록이후 수입지출 내역을 하나 빠트림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모이면 결국은 기존정당과 차별되는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崔대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때에 우리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 위기나, 지금 우리 정치가 걸은 돈, 부정부패 정치자금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이번 사건을  깨끗하고 무뎠던 정치물인 실한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 이름과 고품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산고로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趙대표는 새해에는 바른 정치, 희망과 변화의 정치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깊은 밤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저와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청정수가 되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문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표 = 저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합심 시대정신을 대변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간혹 주변에서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교론' 등 극단적인 비판이 들려 올 때마다 대한민국 의 주요 지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 현재와 같이 정치가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대규=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신은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사용한 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주변의 측근들이 부정과 비리에 개입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요. 따라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합
니다. 과거와 같은 정치에서 완전히 벗
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
선이야말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
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깨끗
한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趙대표=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의 요
체는 깨끗한 정치입니다. 정당법이나 선
거법 등 기존의 정치관련 법을 보면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원숭이띠 동문 10인의 新年 소망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

金垸成(20년생·42년 京城高南辛)이수그룹 명예회장·본회 고문



새해에는 정치 같은 것에 무관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국제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되고, 이라크 사태도 하루빨리 진정되어 진정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요즘의 우리 나라 정치 혼란이 앞으로 있을 4월의 총선 탓이라고 한다면 나는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정치와는 무관하고 싶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내 마음을 같다고 한다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추잡한 정쟁 다 집어치우고 4월의 총선을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 경쟁이라도 펼쳐졌으면 한다.

새해 들어 그동안 침체했던 투자가 소비가 살아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와 사회 안정이 필수적이다. 4월의 총선을 치르다 보면 올해의 반은 정치 바람으로 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되어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에 쏟아 넣었으면 한다.

새해에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기를 염원하면서 나는 내가 소속돼 있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현역으로 이바지하고 싶은 것이다.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지만 들어맞는 일이 드물었다. 그런데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만이 불확실한 장래를 극복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새해에는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안정이 절실한 것이다.

현실보다 꿈을 그리며 산다는 것

白帖稔(44년생·67년 文壇大年)

한국영상방송문화위원회 심의위원



고등학교 시절 회화가 좋아했다. 석고 대상을 처음 해본 날, 잘 그려지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여 포기했다. 대학에 들어

갈 때는 소설가가 되고자 했다. 글을 열심히 써보았는데 그 역시 재주가 없는 것 같았다.

신문기자가 됐다. 당시로는 기자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신이 났다. 그러나 기자의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나이 마흔이 넘어서 은은하나라고 했다. 「나」라는 사람은 현실보다 꿈을 그리며 산다는 것을. 그런 탓인지 50종반에 신문사에서 나왔다. 40년 전의 꿈이었던 글을 쓰기로 했다. 뒤늦게 쓰는 글이 잘 될 리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기를 부리기만 했다. 바를 새겨 썼다. 그렇게 1년여를 끄덕대던 어느 날 밤, 나는 발견했다. 정신 없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소설 속 캐릭터들이 원하는 바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나는 드디어 깨우쳤다. 소설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쓴다

우리 터전 지킴이로 모두가 나설때

林權子(32년생·55년 美大入)여류화가·회 고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만년에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린 풀 고갱의 대작 제목인데, 그림 제목치고는 참으로 길다. 하나 탄생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도 대단하지만 그 제목은 작품을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선문답 같은 사유의 시간을 열어준다.

한 인간, 또는 한 나라 역사의 기록이나 해석은 사실에 어느 정도 진실인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 피난지점 교묘는 부산에 교과사가 있었다. 미술대학은 송도 바닷가에 있었기에 언어적인 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미적 사심을 다양한 바다모습을 통해 젊은 우리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개인 날에는 바다 어디에서든 대마도가 보였던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대마도는 우리

나는 회감을 맞은 해부터 주위에서 더러 나이를 불문인 공작 「서른 둘(32년생)」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다가 뒤늦게 그 뜻을 알아차리곤 왕당대소하가 일쑤다. 노령기에 들어서 가장 큰 비극은 몸은 늙어 가는데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안벨렌스의 점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과 신체적인 질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아내와 요즘 안티 에이징(Anti-Aging)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노화방지학」인 셈이다.

그러나 무작정 장수만 하면 될 것인

말이었다고 했다. 70년대 초 해남 尹善通先生 고택을 방문했을 때, 유물들 중에는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 우리 땅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가 오랫동안 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보다는 우리 땅이 더 가까운 대마도는 어떻게 된 사연으로 일본 것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얼마 전 대마도 역사기행으로 이어졌는데, 나와 같이 대마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70여 명이나 이르렀으며 학문적인 강의와 열띤 토론이 여독까지 잊게 했다.

한때 우리 땅이었던 대마도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당파싸움 속에서 우리 지도 밖으로 사라져간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문학적 숫자의 정치비라들이 연일 시끄러운데, 그 액수의 일부분이라도 지적재산 축적에 쓰이지 못함이 슬프다. 단군 이래 가장 작은 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나마도 독도가 위험하고 중국의 역사왜곡도 간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심각하다.

대마도는 바이프로 한국관광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는 것을.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지난 글들을 찬찬히 다시 훑어내었다. 수시로 캐릭터들의 느낌이 내 뇌리를 파고들었고 상당 부분을 고쳐야 했다. 그 뒤로 글이 잘 안 써졌다.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 저절로 글이 됐다. 소설은 수많은 캐릭터가 있다. 주인공만이 아니라 단역까지도 뚜렷한 성격을 가져야 하고 그들도 중요하다. 그들 전부가 독특한 캐릭터를 지녀야 한다. 한데 그게 쉬운가?

현실로 말하면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당수와 정치가도 기업가도 언론인도 공무원도 일반국민도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뛰어난 캐릭터 하나만 나랏 전체, 소설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신년에는 좋은 캐릭터들을 만나야겠다.

이웃 돕는 일에 욕심 부리고 싶어

孫一振(32년생·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경원대 겸임교수



가? 어떤 죽이고 운과 답사하는가 운과 「이제 1백 세까지 내리친 살이 남는 시대가 왔구먼, 찢더니 이런 대답이다. 「혼자만 오래 살아 봤자 뭘 해,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과욕을 부린다면 가진 돈은 풍족하지 못하나 내 이웃과 동창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뭔가 좋은 일 할게 없을까 하고 항상 곱씹고 생각하고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40여 년간 신문사에서 일하는 동안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연말에 송년이나 신년 연두사실을 맡아 집필하게 되면 그전의 사설을 참고삼아 읽어보게 된다. 거기엔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몇 가지 있다. 「다사다난」, 「파도 거칠다」, 「심기일전」 등이다. 지난해의 사회상을 풍자한 사자에서 가운데 「우왕좌왕」이 가장 많다고 한다. 정말 어지러운 한해를 보내며 나의 매년 새해엔 내 욕심도 채워졌으면 싶다.

원래 원숭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영특하고 총명하다고 하지 않는가. 새해에는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우선 우리 동창회를 위해 문자 그대로 英明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성사시킬 작정이다.

동문이 된 세 아들 잘 성장하길 기원

全玲惠(44년생·67년 普大卒)

경희대 교수



이 오르간을 통해 주일예배 음악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봉헌이며 소망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소망은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경희대에서 후학들을 잘 돌보는 일과 우리 부부의 건강. 그리고 모교 동문이 된 세 아들이 각각 자기를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는 일이다. 몸대 줄임줄이 해 대학주부가 쓴 나의 졸업소견에서 인용했던 월리엄 위즈워드의 시구가 생각난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 바라보는 내 가슴 뛰어나/ 어려서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나이 들어서도 그러하리/ 내 생명의 하루 하루가 타고난 경건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망의 음악과 오르간의 아름다운 안에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한다.

이번 방학에는 소망의 음악을 좀더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경험과 테크닉, 보다 넓어진 이해심으로 훨씬 아름다운 소망의 음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한동안은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지내왔다. 그에 관한 연구서적들을 읽으며 강연회, 독주회,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을 가졌고 독일 베토벤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의 시대를 숨쉬어 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베토벤 소나타 연주회의 실황이 CD(Sony Classic)로 출시되는 조그마한 수확도 있었다.

교수활동 외에 내 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매주 교회 예배시 드리는 파이프로오간 반주이다. 매주 토요일

매일 인생의 막 내리는 날인양 살리라

李善媛(56년생·78년 看護大卒)모교 병음 수감호사



열 두 해째 헤어져서 이미 4박이 끝나고 바야흐로 5막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

68년, 경계어 중 입학이란 소식에 아버지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추를 추듯이 기뻐하셨지만 나에게서는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안 났다. 80년대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며 비중에 잠기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사하여 짧은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다행히 꿈같은 삶에 젖어 상해되는 기쁨이 있었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침반을 발견하여 혼란을 감할 수 있었다.

간호원에서 치열한 생사의 기로에서 인내하며 환자분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생각하며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됐다.

이제 5막을 시작하기 전 마음속에 더욱 또렷해지는 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며, 입원된 모든 뜻을 벗고 환의 하나만 걸친 우리 환자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문제라

도 죽음보다는 작은 문제다. 또 한 가지 소위 중년의 책임이라는 것, 다음 세대에 이음다운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차지한다.

2004년 새해에는 더욱 마음을 추스르고, 거창하게 세대간 책임이란 것도 없이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행해야겠다. 매일 인생의 막 내리는 날인양 상심하게 마당표를 찍으며 살고 싶다. 그 속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느끼표를 연발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푸르고 맑게 가꾸어야겠다. 비록 걸 사람은 후회하나 속 사람은 남보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려나

張敬愛(68년생·91년 師大卒)동아사이언스 과학문화연구센터 소장



소망 하나. 「안녕하세요? 동아사이언스 과학문화연구센터 소장 장경애입니다.」 「그런데 동아사이언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동아일보 과학 동아에서 분사를 한...」

이렇게 5~10분 정도 설명을 해도 처음 나를 만나는 상대방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속사정한 표정을 짓지 못한 다. 새해에는 내가 하는 일과 우리 회사에 대해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됐으면 하는 큰 소원을 가지고 있다. 동아사이언스 홈페이지(www.dongascience.com)에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지...」

소망 둘. 「브런드 YOU!!」 상생중앙기술원 孫郁(67년 工人卒)원장님께서 이제는 개인이 브런드YOU!! 성소인이 됩시다. 내게 나는 1백20% 동의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

내가 전에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상당 기간 인사일을 맡 담당하면서 소위 신인 사제도라는 선진 인사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관련서적들을 보니 경영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기업에 있어서도 조직이나 인사관리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나라의 보통기업과 다를 것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의 하나로서 자칭 「인적조립회사」라는 것을 구상하고 실행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 내용의 골격을 말하자면, 일단의 설립자 그룹이

만 1%의 차이만 있을 뿐, 1%는 보통과 평범을 결정짓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1% 차이를 내기 위한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올해에는 2% 부족하게 살아보고 싶다.

소망 셋. 「여자인 주제에 여자답지도 못하고...」

어떤 남자 어른이 공식적인 회의 중에 나에게 던진 말이다. 내가 그 어른의 이야기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세상물정을 참 몰랐던 것 같다. 그냥 「네, 어르신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비위를 맞추면 모든 것이 할 듯 할 듯 좋았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난 새해에는 그런 어른을 많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다.

소망 넷. 2003년은 몸과 마음이 참으로 파란 해였나 했었다. 어느 몇 다가온 2004년에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인간에게 연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난 모든 모습이 예쁘다고 했는데... (미평가 말거나) 올해는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솔직히 이번 신년은 설레기보다는, 위기의 시대에 더 아슬아슬하게 내몰린 느낌입니다. 대학은 고급 취업학원이 되고, 학문에의 순수한 열정과 남다른 부는 점점 기록이 가는 대한민국.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람과 문화, 비록 사회생활에 뛰어들지 않은 저 비교적 안전한 상아탑 속에 있지만, 공부를 시작하여 서투르고 어설피고자 역사와 대면하고 선현들의 문제의식과 사색을 익혀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제 품은 식견에도 너무나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는 일은 더욱 절실한 듯 합니다. 해안을 지닌 선배님들께서 이미 강조하셨듯이, 이 자리가 그 어떤 부나 명예와 관계하는 자리가 아님은 이미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통찰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토

파트너십 조직의 모델을 생각하며

李元首(56년생·85년 社會大卒)다슬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일정액의 설립자 본을 조달할 수 있으면 사업의 목적이나 아이디어를 정하지 않고 조직구성원의 진 입자과 점차 그리고 조직구조와 업무방법에 관한 기본설계만을 한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에게는 일종의 멤버십을 공유하고 일종의 내부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회사는 구성원의 자아 실현의 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근래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여 다양한 지식전문가 그룹이 주요한 사회계층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수단으로 중요시되는 등 사람과 조직의 연결 형태는 전보다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됐다. 물적화사인 주식회사에서든 경영학과 주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주식회사 못지 않게 업무조직의 일반화된 형태와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파트너십 조직의 구조에 대한 모델의 제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파트너십 조직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상해 보고 싶은 것, 이것이 새해 나의 또 다른 소망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할 터

權憲真(80년생·03년 生活科學大卒)모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하고, 오후와 오토를 바르아야 할 자리가 있지 않나. 저조를 지켜 지루에 힘써주시고, 사리를 헤아리는 안목과 넉넉한 배로로 「빛 좋은 개살구」만 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려내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요즘 늘 더 자주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저의 소망 중 하나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당신의 필드에 서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그렇게 치열한 삶의 파도라미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찾고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짧은 글일로 어리석은 반응을 부리지 않으며, 세상과 인생의 참모습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것이 신년의 두께를 건너기 위한, 우리 동문 선배님들께 바라는 소망이자 학문의 길로 입문하고자 하는 어느 후배의 삶의 계획입니다.

사소해서 되려 소중한 소망 빌고파

金春恒(68년생·90년 經營大卒)동양증권 차장



마른 몸매 같은 게 나는 세밀거리에 한해 동안 끌어온 시간들을 흘려보내며 돌아서는데, 한참을 뒤적거리고 가슴 서늘하고

이는 기억은 없고 따분했던 일과들만은 순하게 열려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적응하는 한 마리 카멜레온이었다면 운명일까? 그렇다고 밀린 숙제를 하는 기본으로 살아 왔던 건 아닌데 각별히 새길만한 기억 하나 선풍 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좀 섭섭한 일일 것이다. 30대는 가장 바쁜 생의 한때 일거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직업이 한결 더 할거리는 식의 변명 아닌 냥두리라고 늘어놓아야 할 만큼 그저 딱딱한 나날이었던 것 같다.

사실 대다수 도시민들의 삶이란 그렇게 맑아 있다는 건 아니다. 저마더의 생업에 약삭같이 보면 갖고 싶은 취미는 커녕 가까운 친구들조차 소원해지기 십상이다. 서로 조금씩 이해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별 할바는 없었지만, 때때로 그 무엇인가 위로받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득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마련한 일탈이라도 떠올려가며 스스로의 위안을

얻는 나뭇의 길에도 어렸지만 그럴 때 나는 훌쩍 고향으로 내려간다.

유년의 기억들이 고즈넉히 불어있는 그 곳 뒷 강물에 반사될쯤 뽕싹대를 드리워놓고도 하고, 잠시나마 형제와의 농사일을 걸을지도 하면서 아주 현천히 흐르는 듯한 시간을 느껴보고 한다.

또 한 해가 밝았다. 이미 수없이 겪어온 일인 낯익은 세상의 다채를 한 걸 더 둘러야 한다는 입말의 답답함이 앞선다. 그래도 올해는 모처럼 찾아든 마대이나 만큼 오히려 가슴에 담아 다독이고 싶은 소망 하나쯤 빌고 싶다. 사소해서 되려 소중한 것, 가까이 있으므로 더 눈에 띄지 않는 것들, 꿈이란 말로 호명하기엔 너무 거창할 것만 같아 그냥 바람이라 불 이해하 추울, 오직 나 혼자만이 기쁠 수 있는 그런 거 말이다. 필경 그것이 이루어 점을 전하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林회장 “신관, 동문 단합의 요충지 될 것” 鄭부총장 “동창회관 건립문제 적극 검토”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5일 한국인문재단 19층 대 회관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在淳 명예회장을 비롯해 林光洙회장, 孫一煥 상임부회장, 관악회 洪性大 상임이사, 李吉女·辛東一·孔大植 부회장, 朴英俊 감사, 許 晝 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과 동창회보 金哲珠·金昌俊·李炳均·南仲九·金錫鎔·金好俊·丘月煥·安炳燾·李慶衡·金鍾勳·金仁奎·徐玉植·朴聖姬는 실무위원, 崔英勳 편집기자, 관악회론인회 朴勝俊 간사, 모교 鄭熙熙 부총장, 白忠鉉 대학원장, 余順聖 연구부처장, 대학신문 李昌謙 주간, 朴相熙 총보부장, 安相澤 인문지상, 국회사무처 朴秀堉의원과 과장, 감사원 崔煥宇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는 늘설위원을 거쳐 그동안 배울 여주는 노고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오는 보그사항 가운데 동창회관 신관을 관악캠퍼스 내 또는 인접한 곳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임총장의 적극적인 요청과 헌 鄭熙熙 부총장의 긍정적인 배려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모교와 동창회관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모교의 희망 사항인 수준 높은 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여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모교 동문 단합의 요충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모교 鄭熙熙 부총장은 “올해 동창회는 28인명을 위한 서울대 인명록 작업을 마무리하고, 동창회보 3책호 기념 CD-ROM을 배포하는 등 큰 사업들을 끝했으며, 특히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모교 재학생 2백60명에 게 5억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金在淳 명예회장의 건배제에 이어 연발연설을 맞아 본회는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명의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 林光洙회장이 조신일 부 勝俊 연구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許 晝 사무총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비움을 절감하면서 동창회비 수납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동창회비 및 회비 납부 지로 발송 방법을 개선하여 회보와 지료를 비닐 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해 오시길”이라고 말하고 “회비납부 및 이자를 감

소 등으로 동창회의 모교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확충을 위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林光洙회장은 동창회관 신관건립 기본계획안을 소개하면서 “이 안은 서울시 주요산 경관정비계획과 모교의 Master Plan을 감안하여 작성했으며, 현 교수회관은 관악CC 건설 때인 39년 전에 불합치우스로 건설돼 노후화되었고,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신축부지로 선정했고, 항공사진과 신축 신관건립의 조감도·경면도·상세도를 관람할 수 있게끔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관악구 시민들의 파가운 시선과 건립을 얼마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지만, 신관 1~2층 보비를 모두 유리로 만든다면 건물 내에서도 탁 트인 관악산과 캠퍼스를 감상하는 동시에 주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건립을 1천1백60평 정도로 조정하여 2층 라운지를 비롯한 5층식 규모의 컨벤션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관건립 후 관리비 문제로 모교에 큰 부담을 안겨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예식장과 식당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鄭熙熙 부총장은 이에 대해 “동창회관 신관 건립에 대해 모교 교수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노력해왔으며, 지금까지

교수회관을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자는 안은 나왔으나 동창회에서 지원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신축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건물 명칭, 용도,

컨벤션센터 및 결혼식을 운영하자는 데 있어 동창회가 모교에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지 등 언어 할 산이 많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表)

재단법인 관악회 제88차 이사회

특지·기금장학회 대표 모임 겸해

李吉女이사·金一燮감사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7일 종로구 신문로2가 「형원」에서 제88차 이사회 겸 특지·기금 장학회 대표 초청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이사장을 비롯해 洪性大 상임이사, 明泰鉉·孫一煥·安聖哲·李炳均·金一燮·朴明儒·鄭八道·金秉順 이사, 朴英俊 감사, 許 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金錫鎔(前인제고 교장)·崔相熙(한일기술연구소 회장)·孔大植(대영테크시스템 사장)·李元圭(한산 아세도 불구 화수회장)·鄭泰壽(번호

삼한 경기 점계와 설립없는 사회환원으로 인하여 4억여 원의 기금 증가에 그쳐 금년말 총기금의 규모는 약 40억9천만원으로 마감하게 됐으며, 내년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장학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朴柱錫 감사의 후임으로 金一燮(이화여대 경영부총장)이사, 金一燮(이화여대의 후임으로 李吉女(경원대 총장)의대동창회장을 선임했다.

신관 건립 관련 임원 모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20일, 22일 이틀에 걸쳐 신관건립 관련 고문단 및 건립위 위원장단 모임을 열었다.

20일 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본회 林光洙회장이 白文基·李聖秀 고문, 金在淳 명예회장, 洪性大 부회장, 모교 趙光호 전임총장, 許 晝 사무총장 등에게 신관건립 경과보고 및 계획 등을 설명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2일 서울시에 식당 형원에서 열린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煥 상임부회장, 尹勳煥·辛東一·孔大植·洪性大 부회장, 朴英俊 감사, 許 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신관 건립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모교와 협의 하에 하루 속히 부지를 확정토록 협의했다. (亨)

林光洙회장 송년편집회의 인사말 <요지>

매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따가운 질책은 동창회보가 23만 동문들의 대변자로서 성장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일하고 동문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회보, 높은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회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鄭熙熙 부총장님을 비롯한 보그 교수님 여러분,

작년 송년 편집회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동창회관 신관 건립에 관한 모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비와 같이 동창회관 신관을 관악캠퍼스 내 또는 인접한 곳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임총장의 적극적인 요청과 헌 鄭熙熙 부총장의 긍정적인 배려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모교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신축부지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이 적절하다고 판단, 할애해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을 동문 일동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할 동창회관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모교 교직원과 재학생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문과 모교 구성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교의 희망사항인 수준 높은 컨벤션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여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문 단합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신관에 대한 신축 설계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이 지역의 서울시의 주요산 경관정비계획과 학교의 Master Plan을 감안하여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앞으로 여러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당국과 상호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술작품



林 深 無 碍, 수묵담화, 35x41cm, 2004.

以石 林 頌 義 作

<작가약력>

- ▲83년 모교 미술 회화과 졸업
- ▲개인전 88:
- ▲국내 초대전 2백50여 회
- ▲외국 초대전(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호주 등) 16회
- ▲제1회 제화미술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명·소사위원
- ▲남자미술인 초대전
- (한중수교 10주년 기념)
- ▲역성여대 미술 대학원 교수·학장
- 한국화회 회장 역임
- ▲현재 한국기림·남자미술원 고문, 역성여대 동양학과 명예교수

수원지부

琴泰雙동문에게 공로패 전달



좌로부터 尹勳煥·林光洙·鄭東廣·林昌烈·崔榮勳 등

수원지부동창회(회장 俞東鎭)는 지난 12월 11일 수원시내 삼성 노블가운티 4층 연회장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尹勳煥부회장, 許 道사부총장을 비롯해 趙南鎭(57년 醫大卒·동수원병원 이사장)전임 회장, 모교 농생대 趙鎭步(58년 農大卒·前모교 부총장)명예교수, 沈載總(63년 農大卒)前수원시장, 뉴시스 林昌烈(66년 商大卒·前경기도지사), 崔榮勳(65년 法大卒)수원지방법원장, 李哲奎(70년 法大卒)경기개발연구원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그동안 간사장으로 수고하신 琴泰雙(82년 農大卒·필리나나 대표)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俞東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같은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 동창회 임원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수원지부 동창회가 골프동우회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대 동문들의 모임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동문간에 우의와 모교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져 국가에 일익을 담당하는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찬과 함께 노블가운티에서 운영하는 필리나나 오피스텔의 독주, 3중주, 합주가 연주됐으며 각계 동문들이 협찬한 경품추첨, 각 단과 대학별로 회원 소개가 있었다.

부산지부

새 회장에 河基成동문 선출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眞奎)는 지난 12월 8일 본회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동문 3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文眞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동안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온 것에 대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2004년에는 새로운 회장단의 지도하에 지역 사회의 풍요로운 역할을 다하는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孔大植부회장이 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鄭道鎭(가사장), 安錫煥(충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孔부회장 이 대하 축사를 통해 『회장이 취임한 이래 등산대회 겸 야유회와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개최해오며 동문 화합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왔고 소모임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활발적인 지방지부 활동으로 찬사와 성원을 받아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정

신을 이어 동문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 모교와 부산·경남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河基成(62년 商大卒·임산산업 회장)동문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河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님의 뒤를 이어 따뜻한 고함의 장이 넘치는 동창회가 되길 바라며 체계적인 비전을 갖는 활동들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송탄지부

모교 지원 방안 검토

송탄지부동창회(회장 王俊賢)는 지난 12월 17일 송탄시내 식당 단골집에서 제임동문명원 尹榮奎(62년 醫大卒)위원장, 연합동문명원 金奎泰(63년 醫大卒)위원장, 深藏(91년 醫大卒)동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창회의 회원 수를 늘리고 황송화를 모색하기 위해 동문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말하고 『앞으로 이 지역 출신 모

교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교 지원사업에 진력하자』고 전했다.

마산지부

송년회·정기총회 개최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祥旭)는 지난 12월 12일 마산 로얄호텔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순안병원 安在鎭(50년 醫大卒)위원장, 재건약국 權永煥(58년 藥大卒)이사, 申尙澈(56년 藥大卒)등은, 강안과 姜來烈(62년 醫大卒)위원장, 동진분석기술연구소 李景泰(63년 文理大卒)대표, 경남대 李進(64년 工大卒)교수, 金漢興(69년 農大卒)치과의원장, 한국대양유전 李憲熙(70년 工大卒)부사장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했다.

金漢興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여건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비록 가운데에 도착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심혈을 기울여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李進교수는 격려사에서 『회원 참여의 중요성과 주위와 모교에 대한 도전에 힘을 모아 단결한 때이며, 생활이 바쁘더라도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여윌을 갖자』고 당부했다.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건강보험 세미나 열어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회장 金方喆)는 지난 12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는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제는 앞으로 다져줄 생명공학 시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교 朴南淵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에는 저명한 동문들께서 우리가 담당한 두 가지 중요한 과제, BT산업과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생명의료와 BT산업'과 관련, 교수 黃美蘭(77년 醫大卒)교수가 '생명력 제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모교 의대 법의학고실 李奎聖(77년 醫大卒)교수, 보건복지부 趙善植보건정책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모교 보건대학원 權曉晚교수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라는 주제로 모교 文玉鎭교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참석한 인사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건대학원

신임 회장에 申碩舒동문 선임



좌로부터 새 번째 梁孝致부위원장·具聖會 前회장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具聖會)는 지난 12월 5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소강당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 및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그동안 동창회와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金秀賢(67년卒·성형외과 원장), 成基鎭(67년卒·한서대 총장), 鄭文鎭(68년卒·모교 보내원 교수), 禹世鴻(68년卒·서울보검대 교수) 등 동문 4명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했다.

具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과 성을 다한 결과 그동안 동창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장학사업에 많은 결실을 거두어 오늘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예스신

동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모교 梁孝致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 여러 동문들께서 동창회와 후학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날 그동안 모은 장학기금 1억원을 본회에 출연, 특기장학회를 설립하여 후학들의 장학금과 교수 연구지원 기금을 지급하도록 의결을 모았다.

한편 具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통해 申碩舒(67년卒·한국계약협회 전무이사)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權赫蘭(77년卒·바이오텍 대표)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의 시간을 통해 회가에 예한 분위기에서 경품 추첨과 게임을 즐기며 송년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지부 여성지회

초대 회장에 吳世和동문 선출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여성지회는 지난 12월 8일 유성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충남지부 吳熙寧前회장, 韓鶴淳교수, 吳熙寧前회장, 金東錄(가사장), 文熙宗(가사장)의 간사를 비롯해 백제약국 鄭美和(63년 藥大卒)관리약사, 한국회화연구원 吳世和(65년 文理大卒)부장(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俞香淑(72년 藥大卒)단장, KAIST 尹淨老(77년 社會大卒)교수, 충남대 洪麗姬(79년 家政大卒)교수, 공주대 沈淑伊(80년 師大卒)교수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張文熙총무(사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吳熙寧前회장

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이후 동창회의 활성화에 대해 노력한 결과 최근 한때 지회를 창립한 바 있으며 오늘 또 여성지회를 설립하게 돼 그동안 활동이 미비했던 여성동문들이 하나의 구성체를 통해 지부 전체 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吳熙寧前회장은 축사에서 『연세나 동창회가 앞서가는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여성지회 창립은 또 하나의 선례로 새 임을 개척한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문의 건승을 빈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원 선출을 통해 吳世和동문을 여성지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감사에 鄭美和동문, 총무에 洪麗姬동문을 선임했다.

吳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여성동문들이 하나의 구성체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에 아름다운 전구들을 꿰어 엮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李)

의과대학

송년회서 「합춘의학상」 시상



좌로부터 梁承午(의과대학장), 李희장, 黃 龍(의과대학장)

의과대학총장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3층에서 동문 1백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춘 송년의 밤 및 제7회 합춘의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李희장은 인사말에서 「동문들 모두가 각계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애진해왔다」고 말하고 「이제 동창회는 동문사회에 더욱 힘찬 격려와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朴容晟(의과대학장)은 「지난 6월 모교 분당병원을 개원하여 현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

며, 전 부문에 걸쳐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모교 치과병원 설치 법안이 통과

되어 치과진료부가 내년 5월부터 분리 독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춘의학상 시상식에서 연구업적부문에는 안하대 의대 성형외과 黃 龍(83년卒)교수, 연구기획부문에는 울산대 의대 방사선과 梁承午(81년卒)교수를 선정, 상패와 함께 각각 1천만원의 연구비를 전달했다.

黃교수는 「장편지 축소술과 관련된 장편지 근육들의 신경 지배」, 梁교수는 「대퇴골을 이용한 환과 골절 미세 영상」 조식계 축소술과의 비교」라는 논문이 채택됐다.

기)총무이사, 재학생 등을 비롯한 동문 1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보통신부 陳大濟(74년 工大卒)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강연 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사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정 통창회를 정보통신부 방송정책과정(AIC) 통창회와 동일한 임의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책과정은 27기까지 배출된 후 AIC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통창회 모임일을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다.

도시환경과위생정책과정
吳元錫회장 선출

도시환경과위생정책과정통창회(회장 吳元錫)는 지난 12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3년 사업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동성 화학공업 吳元錫(27기)대표(사진)를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이선(27기)동문, 감사에 洪誠鈞(1기)-이원재(3기)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통창회는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전임 禹鳳仙회장과 洪誠鈞총간사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치·외교학과

대한상의 朴容晟회장 강연



오호 7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외교학과통창회(회장 朴鍾圭)는 지난 12월 18일 롯데호텔 필름에서 정례 조찬회를 가졌다.

朴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朴容晟(65년 商大卒·상대통창회장)회장(사진)이 특별연사로 나선 가운데 「우리 기업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편 통창회는 오는 1월 15일

사법대학

동창회 빛낸 동문 9명 선정

사법대학총창회(회장 李秉一)는 지난 12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2003년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한림대 鄭範熙(49년卒)석좌교수, 안하대 교육학과 金榮福(57년卒)대우교수, 李鍾熙(61년卒)

鄭哲基(63년卒)·嚴虎巖(80년卒)·沈在哲(85년卒)국회의원, 경기여고 金珠亨(65년卒)교장, 이화여대 심리학과 柳聖媛(86년卒)교수, MBC 金榮希(87년卒)PD 등을 선정했다.

또 동문 친목 도모에 크게 이바지한 산정호수 유스타운 李鍾郁(68년卒·은곡고교 교장)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독교동문회

신임 회장에 簡榮錫동문 추대

기독교동문회(회장 徐廷奎)는 지난 12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 마로니에홀에서 본회 許 顯사무총장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 감사대회를 가졌다.

1부 예배에서 알렐루야 교회 담임목사인 金相福(63년 文理大卒)동문이 설교를 했으며, 총회에서는 2003년 「자랑스런 서울대 기독교인」에 예일학원 金繼桓(49년 法大卒)이사장과 명지

대 李鍾錄(54년 師大卒)명예교수를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簡榮錫(61년 法大卒)前 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金興山(58년 法大卒), 鄭相鵬(60년 法大卒), 禹圭煥(64년 師大卒), 金尙哲(70년 法大卒), 朴鳳澤(71년 工大卒), 任鳳準(71년 文理大卒)동문, 총무에 韓容基(72년 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表)

경영대학원

경영인 대상 및 강의상 수여



좌로부터 文國現·趙在虎·朴武益·金英大(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원총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시내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대영테크시스템 孔大植 사장, 금복주 金復福회장, 모교 경영대 朴容熙회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제4회 경영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국가와 사

사장에 게 물었다.

한편 모교 재학생들이 지난 학기 직접 작성한 강의평가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힌 趙在虎(78년 經商大卒)교수가 「경영대 우수 강의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趙교수는 시상식 후 「주식의 수익률프리미엄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04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4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정통부 陳大濟장관 특강 펼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文憲一)는 지난 12월 26

일 박경숙(8기)홍보이사, 김성만(9기)재무이사, 이세현(11

부산지부 동창회 河基成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보건대학원 동창회 申碩舒회장

“선후배간 서로 섬기는 장 만들 터”

지난 12월 8일 부산지부 동창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河基成(62년 商大卒·임신산업 회장)동문을 선임했다. 이에 河동문에게 그동안의 동창회 활동과 앞으로 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 취임 소감과 각오 한마디.

『오랫동안 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동창회에 대한 애착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동창회를 위해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님들이 너무 많은 일들과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염려도 됩니다. 앞으로 선배와 후배간에 서로 섬기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장을 만들 계획이며 아름다운 추억과 우정이 깃드는 곳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부산지부 동창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동창회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투자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소모임들이 특히 활발한 동창회 중 하나인데 동산모임인 관악산우회와 젊은이들이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는 모임인 마로니에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나.

『그동안 文貞豪 전임 회장께서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반을 토대로 동창회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단과 대별로 연대해 동창회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지금까지 전임 회장께서 사무실을 빌려 주셔서 동창회에서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동창회만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문제가 있고 자금



관리의 체계성을 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지.

『물론 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비전을 단순히 제 일기 동안에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은.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작은 사회 즉, 이웃과 회사, 그리고 동창회의 필요를 살펴 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河회장은 83년 부산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임신 대표, (주)임신산업 대표이사, 「동래저널」 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 루마니아 명예영사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물지 않는 새」 등이 있다.

(亨)

“장학사업·소모임 활성화에 주력”

지난 12월 5일 보건대학원 동창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申碩舒(67년 保大院卒·한국제약협회 정무)동문을 선임했다. 이에 申동문에게 취임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 취임소감 한마디.

『처음엔 참 난감했어요. 요즘 생활이 너무 비싸 잘해 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래도 우리 나라 보건을 이끌어 가는 분들로 이뤄진 집단의 장을 맡게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동문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보대원 동창회는 1961년 발족해 현재 석·박사 2천8백여 명과 가정간호과정, 보건의료장제 최고관리자 과정 등 특별과정들 거친 동문까지 모두 4천5백여 명의 동문들이 국내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 취미, 직장별로 나뉘어 소규모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를 잡지는 못했죠. 올 한 해 소규모 모임들을 꼼꼼히 찾아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나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고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행사도 다양하게 꾸릴 생각입니다』

— 재정확보는 어떻게.

『장학사업, 소모임 지원을 위한 재정이 튼튼해야겠죠. 사실 회비모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말 정기총회때 총 동창회에 1억원을 출연하여 특기장학회를 설립하기로 의결 했는데 그 금액이 처음 5백원 모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70년대 초 총무시절 만나는 동문마다 5백원씩 달라고 부탁했죠. 그게 밑바탕이 돼 현재에 이른 것인데, 이런 자세로 임하면 힘들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보건학 분야에 발을 내딛은 계기는.

『졸업후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생활을



하게 됐으며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모교 보건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도전해 두 번 떨어진 쓰린 경험이 있습니다. 모교에 들어간 것은 그때의 아쉬움을 달래는 측면도 있었죠』

— 앞으로의 계획과 동문들에게 한마디.

『개인적으로 BT산업의 중추인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동창회에서서는 계속해서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비롯해 각 직장별, 지역별, 취미별 모임을 활성화시켜겠습니다. 동문들께겐 모교와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대원 동창회가 우리 나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申동문은 보대원 졸업 후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건학 석사과정을 밟고 국립서울검역소장, 보사부 약정국장, 국립의료원 약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제약협회 정무로 일하며 제약업계 「BT(Bio Technology)전도사」로 불리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南)

모교소식

수의학과 黃萬錫교수팀

광우병 내성 소·무균 돼지 개발



모교 수의학과 黃萬錫교수(사진)팀은 지난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와 인간 장기이식용 무균 돼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黃萬錫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국제화를 통한 축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국내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광우병에 내성을 지닌 복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향후 광우병과 관련된 사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광우병은 지난 85년 영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그동안 23개 국에서 20여 만 마리가 감염되어 국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키며 피해액수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광우병을 막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왔으며, 우리 나라도 黃교수 연구팀의 주도하에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의 'TMT-2000' 출연금

40억 원을 지원 받아 2004년 개발을 목표로 광우병 내성 소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黃교수 연구팀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 가운데 생체 내에 축적되지 않으면서 정상 기능을 하는 변이 프리온 단백질을 대량으로 발현시켰다. 마침내 이 단백질을 발현시킨 수정란을 대리모 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광우병에 내성을 지닌 소 4마리를 생산했다. 연구팀은 현재 임신 중인 15마리에서 복제소가 추가로 출산되면 유전자 검사를 거친 뒤 국내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시설에 보내 생체 저항성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黃교수는 "광우병 내성 소 개발은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세제로부터 매년 반복되는 광우병 공포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개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연구팀이 함께 발표한 인간 장기이식용을 형질전환 무균 돼지 생산기 술은 세계 각국에서 오랫동안 진행중인 연구

로, 절대 부족한 이식용 인간 장기의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무균 돼지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한 것이지만 무균 상태에서 인체에 거부반응이 전혀 없고 돼지의 크기 또한 인간에 맞게 복제한 첫 돼지라는 점에서 큰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균이 감염되지 않은 무균 상태여야 하며, 인간 장기와 크기를 맞추려면 돼지의 크기도 일반 돼지의 3 분 1 가량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번 돼지는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획기적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태어난 지 이틀을 넘기지 못해 앞으로 장기 생존을 위한 연구와 재가 남아 있다.

이번 연구는 모교를 비롯하여 전남대, 충북대 등 7개 대학의 1백20여 명이 참여해 3년간 진행한 사업으로 연구결과와 국제 특허도 출원했다.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가 실용화되면 인간 수선아원 이식의 로열티 수입과 함께 장기이식용 돼지의 생산과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광우병에 내성을 지닌 복제 송아지.

자연과학대학

30세 과학자 金亨度교수 임용



자연과학대학(학장 金夏煥)은 지난 12월 16일 前 美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원인 30세 金亨度연구원(사진)을 물리학과 조교수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교수는 지난 1994년 한국과학기술대를 3년만에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입자물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학기술대에서 1년7개월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美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모교는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젊은 과학자인 金교수를 영입했다고 임용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원 연구동 1단계 기공식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확보



모교는 지난 12월 9일 관악캠퍼스 39동 부지에서 鄭憲燮총장, 金熙喆관악구청장 등 교내외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교육연구동 1단계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鄭총장은 식사를 통해 "교육연구동은 첨단 교육·연구시설로 자리잡을 것이며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적 건물공간에서 더욱 더 생산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연구동은 BK21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2·3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모교 분당병원

환자와 함께 송년음악회 열어



모교 분당병원(원장 成相熙)은 지난 12월 19일 병원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환자와 함께 하는 송년가족음악회를 개최했다.

환자와 보호자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함께 모여 멋진 이번 행사는 부채춤, 환기무 등 전통무용과 호두까기인형 발레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모교 분당병원은 개원 이후 환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친근한 병원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이번 음악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보호자들

위에 열었다.

노인 질환, 전곡서 치료

모교 분당병원은 지난 12월 17일 노인성 질환 환자진료와 연구를 위해 전국 8개 노인전문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었다.

이번 진료협약을 체결한 병원에는 충북 청원 초정노인병원, 부산 동인노인병원, 경남 창원 회연병원, 경기도 용인 효자병원, 서울 참병원, 경북 안동 동명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광주 시립인광치매요양병원, 경기 성남 보배스기병병원 등이다. (李)

미술대학 학장에

디자인학부 權寧傑교수 선임



(사진)이 선임됐다.

權교수는 76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미캘리포니아대 대학원 디자인MA과정을 마쳤다.

89년부터 98년까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98년 모교에 부임해 미대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2월 9일자로 미술대학 학장에 디자인학부 權寧傑교수

우선 모교는 올해 1학기부터 대학 국어, 미적분 등 기초 과목과목에서 15명의 전임대우 강사를 뽑아 실시한 뒤 2학기에는 글쓰기 세미나 과목에 3명을 더 추가하는 등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공과대학

과기정책연구와 협동 약정

공과대학은 지난 12월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崔承洛·75년 農大卒)과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정책 및 기술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협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인력교류,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기술정책 및 기술경영 협동과정과 교과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및 개선 등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상호간에 인력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모교 교수를 STEPI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STEPI의 연구원은 모교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전임대우 강사」 제도 도입키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위한 일환

모교는 지난 12월 25일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임대우 강사」 제도를 일부 교양과목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임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다수의 강의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간강사들은 시간당 3만9천원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해 사퇴 문턱에 직각해 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 2백50만원 정도의 급여,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되며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의과대학

근대 의학발전의 전인차 역할

부리를 찾아서

「합춘의학상」 및 「합춘대상」 제정

글 : 黃南寬(77년 醫大卒) 모교 의대 의사학교실 교수

글 : 金鐘和(69년 醫大卒)의대동창회 총무이사

모교 의과대학은 1946년 8월 22일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산하 단과대학으로 발족했다. 모교 의대는 1916년 4월 1일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1926년 4월 1일 개설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모체로 탄생했지만, 1885년 4월 14일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금 재종임으로 개칭)과 1899년 3월 28일 창설된 최초의 본격적 근대의학교육기관인 의학

당에 가능했다. 후자는 한국 근대의학을 외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의학체계든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노력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예는 세계사를 통해 찾아볼 수 없다. 역사와 사회는, 그리고 그 한 부분인 의학은 여러 나라와 민족의 상호교류와 협조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의학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 의학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낼 때 그 의학은 외래의학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학」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백여 년 동안의 한국의학의 역사를 「근대적인 민족의학의 형성과정」이라고 규정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뜻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모교 의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바이다. 즉 개교 이래 모교 의대는 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제적 학술활동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보였다. 또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한민족 최고의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새 세기를 맞아 세계의학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명을 새롭게 자임하게 된 모교 의대와 그 구성원들은 한국사회의 보건 의료로 파장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때에 그러한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는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자를 회원으로 1955년 6월 창립되어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산하조직으로는 총 94개의 의과대학·종합병원 및 주요 지역지회와 해외(미국)지회를 두고 있는 한편 각 졸업 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과대학의 설립 역사는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시절부터 배출된 동창회는 1만 여 명에 달하며, 2003년 말 현재 국내외에는 7만 8천 8백 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의과대학 동창회는 단과대학으로서의 드물게 독립된 회관을 건립하여 그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의과대학 동창회는 현李吉女(57년卒·경원대 총장)회장의 취임 후 1996년 7월부터 회원들의 열렬한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사업을 전개했으며, 불과 6년 여만에 연건동 캠퍼스에 동창회관인 「합춘회관」을 개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춘회관은 모금 시작 5년여만에 약 40억원의 기금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할 수 있었으며, 2001년 10월 29일 연건동 캠퍼스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1년여 만인 2002년 10월 21일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역사적인 준공을 보게 되었다.

동창회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회무의 내실화에도 역점을 두어 삼십년을 사

업 단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참여하는」 동창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에는 회원관리를 전산화시켰으며 이때 회원명부를 대폭 보완 정비하여 발간 배포했다. 이를 계기로 동창회는 회원관리 업무는 물론 일반 회무의 전산화로 회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젊은 동창들의 회무 참여를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현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 회무 시스템도 개발 전망이다.

특히 회원진목과 모교육성지원을 사업의 큰 목표로 삼고

55년 창립...국내외 94개 지회 운영

있지만 회원 발전과 의과대학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주고자 하는 포상 및 연구지원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1978년 6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연구재단과 모교가 협력하여 1997년에는 「합춘의학상」을 제정했다. 합춘의학상은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자랑스런 기억을 위해 학회 동문들에게 주지며, 율리안 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술연구에 정진해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 3명(연구업적, 연구계회, 해외부문 각 1명)을 선발해 매년 12월 송년회 석상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있다.

학술연구 외에도 평생을 통해 학술연구나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으로 인류복지 증진, 의료발전 및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현상하는 「합춘대상」을 1999년 10월 제정하여 매년 3월 정기총회 때 본문별로 3인에게 시상해오고 있다.



모교 연건동 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2003년 10월 21일 동창의 날 행사.

경성대 의학부와 경성의전 통합

등 일본(인) 학교로서의 성격이 농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학교가 개교한 데에는 식민지 지배를 받던 한국인들의 갈망한 교육열과 근대화 열망, 그리고 독립의지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생각할 때 순진히 일본인 학교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소수이지만 두 학교의 한국인 교수와 학생들이 해방 뒤 모교 의대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두 학교의 학풍과 전통이 모교 의대와 나아가 한국의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에서 두 학교를 모교 의대의 역사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민족 자체의 역량에 의해 근대적인 의학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방 뒤이다. 그러한 발전은 한말과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역량을 쌓아온 선배들의 분투가 있

■ 연 혁

- 1885년 4월 14일 서울대학교병원의 모태인 광혜원 설립
- 1899년 3월 24일 「학령 제7호 의학교 편제」 반포로 모태인 의학교 설립
- 1902년 7월 4일 의학교,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근대식 의사 19명 배출
- 1916년 4월 1일 경성의학전문학교 설립
- 1926년 4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
-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 1952년 4월 26일 모교 개교 후 최초로 6명에게 의학박사학위 수여
- 1960년 9월 1일 「서울의대잡지」 창간호 발간(1977년 「서울의대학술지」로 개칭)
- 1978년 7월 15일 의대 부속병원이 특수법인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독립, 개칭
- 1985년 3월 30일 「서울의대학술지」를 영문판(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으로 발간 개시
- 1987년 10월 26일 의학교 교장 松村 池澤永三翁 동상 제막식
- 2003년 2월 27일 제57회 의과대학 자체 졸업식(개교 이래 의학사 1만2백82명, 의학학사 3천7백52명, 의학박사 3천2백23명 배출)

■ 연 혁

- 1955년 6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창립(시계탑 건물 1층)
- 1969년 2월 동창회 소식지 창간 발행
- 1978년 6월 23일 제1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학술연구재단 설립, 동기
- 1990년 6월 22일 동창회 사무실 모교 의과대학 본관 3층으로 이전
- 1995년 1월 19일 합춘회관 건립사업 발의, 상임이사회 개최
- 1995년 3월~李吉女학사 제30대~제33대 회장 취임
- 1995년 4월 30일 동창회 소식지 타블로이드판(12면) 발간
- 1996년 7월 1일 합춘회관 건립기금(목표액 40억원) 모금사업 개시
- 1997년 12월 13일 제1회 합춘의학상 시상(2003년 12월 현재 제7회 개시)
- 1998년 5월 1일 학술연구재단 업무 모교에서 동창회로 환원 이관
- 2000년 3월 16일 제1회 합춘대상 시상(2003년 3월 현재 제4회 시상)
- 2001년 10월 29일 합춘회관 건축 착공
- 2002년 5월 19일 제1회 의과대학 동창회 가족통신대회 개최, 총1백54명 참가
- 2002년 8월 23일 동창회소식지 2백호 특집(2002년 7-8월호) 발간
- 2002년 10월 21일 합춘회관 완공 준공식 거행



文旭熙 前대구초교 교사

자녀·사위·손자 등 '3대 가족 전시회' 열기도

“각자의 독특한 세계 만들도록 창의력 키워줘”

작년 이맘때쯤, 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는 혼혼하면서도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文旭熙(45년 京城師範學校卒·前 대구초교 교사)동문의 喜壽을 기념하여 2003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文동문을 비롯한 자녀와 사위, 며느리, 손자 등 일가족 11명이 1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제목은 「작품으로 만난 3대전」. 이 전시회 속에는 文동문이 60년간 화집 속에 간직해온 「뜨락에 앉아 있는 차씨」 그림, 장녀 朴南姬(74년 美大卒·경북대 미술학과 교수)동문의 추상화, 차녀 朴南妍(76년 美大卒·조각가)동문의 인체 조각 작품, 만사위 鄭鎭宣(76년 大學院卒·한반도 정보화추진 본부장·前국회의원)동문의 컴퓨터 그래픽 작품, 초등학교 생 손자의 초가집 풍경 작품 등 가족의 사람과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2남3녀를 둔 文旭熙동문은 지금도 독서와 TV를 시청하면서 한지공예, 필트, 자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취미이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文동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틈틈이 그린 그림들이 몇 권의 화집이 되어 집 한켠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결혼 후 가정을 돌보기 위해 사회생활을 접어야 했던 文동문은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회봉사가 자신의 능력향상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답부했으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부를 걸 독특한 나만의 세계, 개성 있는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집 가훈이 「근면 성실」과 「참조적 인간」입니다. 제 형제들을 비롯해 미술가들이 많은 탓에 세 딸들도 모두 미술가가 되었죠. 남편이 일찍 작고하여 홀로 아이들 교육을 뒷바라지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모두 올곧게 잘 자



뒷줄 좌로부터 朴俊炯동문, 한 명 건너 朴南妍·朴南姬·鄭鎭宣동문. 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 文旭熙동문.

라져서 감사하다」며 진진한 미소를 띄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이 세계아동미술전람회에 특선으로 당선하면서 장녀 朴南姬동문은 자연스레 미술가의 길을 걷게 됐다. 겨울방학 때 집에서 그린 그림을 文旭熙동문이 모아 두었다가 우연히 담임선생님께 게 띄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대학시절 전자공학과 대학원 시절인 「파이 클럽」에서 만난 남편 鄭鎭宣동문에 대해 차동문은 대부분의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활동에 매우 긍정적이고, 차동문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회활동 하는 것을 적극 찬성했던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鄭鎭宣동문과 文旭熙동문 가족과의 인연은 더욱 각별하다. 文동문의 남편 故 朴在奎(은 차파의사였지만 새로운 아이

디어와 발명에 일가견이 있어 우리 나라에 「발명의 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발명의 날이 없어졌으나 전자학과 교수로 20년간 봉직하면서 2백여 편의 논문을 쓰기도 한 사위 鄭鎭宣동문은 국제특허 59건, 국내 특허 50건을 보유하고 있는 발명가로 활약하며

15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발명의 날」을 부활시키는 등 문동문으로부터 「서울대·공대 전자동문인상」을 받기도 했다. 또 1996년에는 국회 본회의 때마다 많은 양의 자료를 복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빈프로젝트로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의 저지로 무산됐다가 지금은 노트북이 필수품이 되었다고 한다.

딸들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차녀 朴南妍동문은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체력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입체 회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경북대 의대 나이팅게일상, 김천과학대 나이팅게일상 등을 제창한 차동문은 현재 경북 성주군에 조각공원 겸 작업장을 조성하여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장녀 朴俊炯(82년 慶大卒·박준형치과의원 원장)동문과 차남 朴起兌(82

장녀
朴俊炯(74년 美大卒)
경북대 미술학과 교수
차녀
朴南妍(76년 美大卒)
여류조각가
장남
朴俊炯(82년 慶大卒)
박준형치과의원 원장
차남
朴起兌(82년 工大卒)
美사입가
사위
鄭鎭宣(76년 大學院卒)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장

년 工大卒·美센프란시스코 Matrix Semiconductor 대표)동문 역시 모교를 졸업했다. 장남으로서 부친의 대를 잇고 있는 朴俊炯동문은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한다. 지금도 조기축구회, 마라톤 모임, 치과의사회 체육회 및 경북고교체육대회가 열리면 어김없이 찾아가 선수로 맹활약한다. 정의와 의리를 중요시여겼던 차남 朴起兌동문은 중학교 시절, 보충수업비가 없다고 학우를 제발하는 담임선생님께 입금을 가해 엉덩이를 두들겨 맞기도 한 추억이 있다. 차동문은 고교시절 여러 문예지에 다양한 글과 소설을 게재했던 문학도였으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대에 입학, 美남기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컴퓨터 부품 반도체사업을 하고 있다.

끝으로 文旭熙동문은 가족과의 옛날 추억을 읊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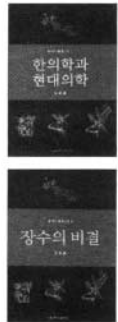
「남편이 치과의사였지만 자녀들 모두가 치아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항상 집 안에 손님이 많아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야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며 간식을 먹고 그대로 자곤 해 충치가 많은 편이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꼭 밤에 모여 음식을 즐겨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작품활동에 몰두하는 저를 위해 자녀들이 가족 전시회를 또 한번 열어 주고 있다고 하니 그저 행복한 따림입니다.」 (表)

新刊

■ 한의학과 현대의학

■ 장수의 비결

—金祐謙 著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인류의 질병 극복에 어떻게 공헌해 왔는지 알아보고 있다.

또 「장수의 비결」에서 복어알독, 코브라 독, 인삼, 녹용 등을 소개하면서 언제나 절제되고 패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하고 온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몸이 무리가 없게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출판부·각권 값9,000원)

■ 고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나라

—潘永煥 著



煥(62년 師大卒) 동문이 기자생활 35년간의 체험을 한권에 담았다.

1962년 조선일보 수습기자로 시작하여 1996년 12월말 서울신문 논설교문을 맡아 언론계를 떠나기까지 발표했던 문화관련 칼럼들이 수록돼 있다. 규원하는 소용들이 속에서, 유난히 건방짐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30여 년 전의 필름을 되돌려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인미디어·값9,000원)

■ 북한 협상형태의 이해

—宋鍾煥 著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인 鍾煥(68년 文理大卒·前주유엔·주미 공사) 동문이 1970년대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했다.

과거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의 관점에 편중되었던 북한 협상 연구의 관행을 깨고 문화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정치 문화를 검토시키고 지난 31년간 남북대화의 개마·중간·합의·이행 단계별로 반복하여 나타난 북한 협상형태의 패턴을 분석, 앞으로 북측과 협상할 한국 및 관련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의 관련분야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도서출판옴름·값16,000원)

■ 지구은난화,

그 영향과 예방

—朴憲烈 著



기 쉽도록 해설했다.

저시대 섬나라들의 침수, 식물들의 정상적인 성장 교란에 의한 생태계의 붕괴,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잦은 집중 폭우에 의한 재산 등의 원인을 지구은난화로 보고 지구의 대기구조를 설명하고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온난화가 가져오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을 알아보고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음출판사·값19,000원)

■ 德이 있는 富가 淸富다

—諸葛政雄 著



(72년 廣大卒) 부회장이 대림그룹 창업주인 故 李慶濤 회장의 淸富사상과 그의 경영이념을 담았다.

이 책은 富에도 여러 가지 부가 있지만 자기와 가정을 다스림으로써 부에 德을 부여하여, 자신은 절제를 하고, 남에게는

추천의 窓

전쟁으로 10년 후배들과 졸업한 동문 많아 임시 하숙집 얻어 20여 명씩 함께 공부하기도

崔鍾煥(54년 法大卒)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



동승동 법대 캠퍼스에 입학한 것은 1949년 9월이었다. 입학생 2백30명은 두 반으로 나뉘어 강의를 들었다. 서로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민족의 비극인 6·25사변을 맞게 됐다. 당시 학도호국단의 간부급들은 마리아고게에서 인민군의 총성을 들으면서 나무총을 들고 모교를 지켜야 한다는 상급생의 압포에 며칠 밤을 새웠으나 6월 28일 새벽, 인민군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우리들은 나무총을 버린 채 모두들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 일부는 군에 입대하고 일부는 이북으로 끌려가고 남으로 피난을 간 학우 등 뿔뿔이 헤어져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허다하다.

피난 임시 수도 부산 대신동에

는 판자로 지은 법대 가선들이 세워지고 1951년 후반부터 강의가 시작됐다. 전방에 있던 학우들은 군복차림으로 복학을 하고 학기말 시험에 나와 학교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고작

이었다. 시험기간에는 대신동에 임시 하숙집을 얻어 전방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20~30명씩 하숙집에 와서 노트를 돌려가며 시험공부를 하느라 바빴었다. 하숙집 주인은 2층 집이 무너진다고 성화했고 우리 주인이론을 달래는데 진땀을 빼곤 했다. 학교 교무당국에서도 복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험과목을 추가로 치를 수 있도록 애써 무척 고마워했던 기억이 난다.

피난 중이었던 53년, 정부가 서울에 환도하게 돼 법대도 동승동 캠퍼스로 옮겨 졸업생을 적기에 한 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입학당시 2백30명이었으나 적기에 졸업을 한 학우(법대 7회)는 얼마 되지 않았고 1년에서 길게는 10년 뒤에 후배들과 졸업한 학우들도 많았다.

필자가 1969년 법대 총동창회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동창회 명부에 입학연도를 기입할 것을 건의해 그 후부터 동창회 명부에 입학연도(1949년, 단기 4282년)를 병기, 입학연도가 서울대학 전체에도 명기토록 확대됐다. 현재 입학동기모임 명칭을 단기 4282년을 기억하기 위해 82동기회로 호칭하고 있고 후배들도 단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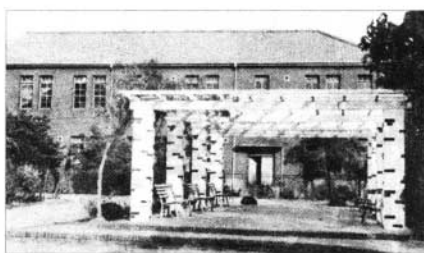
글 두 자로 부르고 있다.

1999년 50주년 행사 당시 주 소학인이 된 동문이 96명, 외국거주 8명, 행방미상 72명, 별세 54명으로 나타났다. (82동기회는 이날 흠뻑물을 기념하기 위해 모교에 1천만원을 기증

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동기회 모임에는 25명이 자리를 함께 해 지난날을 회고했다. 이때 생존학인 90명, 외국거주 5명, 행방미상 68명, 별세 67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법대 82동기회는 6·25사변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모두들 불행한 역경을 겪으면서 대학생활을 한 남란을 모른 채 생활을 보냈고 지금도 동기의 얼굴과 이름이 가물거린다. 추억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수소문해 봤으나 그것도 허사였다.

민족의 비극을 우리들은 평소 체념했고 대학생 때는 추억도 간직하지 못한 불행이었는데 후배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지도자들은 자각과 반성을 하여 조국의 통일이라는 과업을 빛으로 후세에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 환도 후 공부했던 동승동 강의동과 휴게소

나누어주는 미력을 가진 정부가 되라고 말한다.

근검, 소신, 경형, 리더십 등 수많은 다양한 일화를 통해 진정한 청부로 살다 간 그의 삶과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책. (열매출판사·값10,000원)

■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黃大權 著



새로 피난 유럽 인권 기행기. 저자는 노르웨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의 초청을 계기로 13년 동안의 기나긴 유살이를 건너가게 해주었던 격려편지와 후원활동을 펼친 주인공들을 찾

아 1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 다닌다. 이 책은 저자의 수양이 머나 보련, 계이 작가 겸 필. 데이비드 홀만 등 감옥 시절부터 편지를 통해 알았거나 그 인연으로 만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리·값9,800원)

■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李世旭 옮김



스프레소 등에 발표한 글들을 모은 책. 전문 번역가 李世旭(85년 師大卒) 동문이 우리말로 옮긴 이

책에서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우리를 둘러싼 온갖 광기와 어리석음에 대한 유머러스한 조롱이 흥미를 돋운다. (열린책들·값9,800원)

■ 나치시대의 일상사

—金學順 譯



트 의 작품을 번역했다. 이 책은 근대성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규범적, 해방적 측면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법리사」로 나치를 파악하고 있다. (개마고원·값18,000원) (정리=安興旭 기자)

동아대 사회학과 金學順(86년 大學院卒)교수가 나치시대 일상사 연구가인 독일 학자 포이케르



동문기자의 취재수첩

조선일보에 입사한 지 18년째, 스포츠 레저부에서 근무한 것은 8년. 지금은 골프담당기사이지만 거의 대부분 축구 관련 기사를 썼었다. 스포츠기사가 가장 인상에 남는 명승부를 꼽으라면 나는 지난 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98년 프랑스월드컵 아시아예선 한·일전 1차전을 든다. 축구 한·일전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초조하게 승리를 기원하고, 긴장하고, 이겨서 짜릿했던 적은 없었다.

잠시 6년 전 1997년 9월 하순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자. 한·일전은 연날리지만 해도 피가 끓는다는 데 하물며 월드컵 본선전승을 다투는 축구야 더 발랄 나위가 없을 정도.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은 도쿄 국립경기장으로 쏠렸다. 지난 1964년 하계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인 도쿄 국립경기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온통 파란색으로 넘쳐났다. 일본 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파란색 상의를 입고, 짙은 종들은 아예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했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일본 팬들의 손에는 쓰레기 수거용 파란색 봉투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다. 우리의 「붉은 악마」에 해당하는 일본대 표팀 응원단 「올트라 나토」의 선창에 맞춰 「나토」, 「나토」하는 구호는 지옥을 휘젓혔다. 한국 선수들을 소개할 때마다 팬들은 야유를 보냈다. 「아, 여기가 저기구나!」 새삼 내 팔뚝에는 기분 나쁜 소름이 돌아 올랐다.

경기는 그야말로 「90분간의 死闘」과

97년 한·일전, 꿈엔들 잊힐리아!

는 표현이 적합했다. 스코어는 2대 1. 후반 중반 일본에게 선제공격을 허용한 뒤 서정원이 중점공격을 뽑아내고, 이민성의 통렬한 중거리 슈트 한방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당시 한 TV의 해설자와 캐스터는 「후지시가 무너졌다」는 자극적인 멘트로 이 상황을 표현했다.

국내에서 TV로 경기를 시청했던 이들은 「두 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고, 한국이 이겼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겠지만 TV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그라운드 구석구석에서는 심판의 눈을 피해 주먹

“ 90분간의 사투... 한번 이기고 지면 나라가 흔들흔들 ”

으로 치고, 밟고, 찢고, 까는 등 다양한 종류의 「격투」가 펼쳐졌다. 물론 이 싸움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이겼다. 이 「격투」를 진두지휘한 선봉장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시 「대인마크의 1인자」, 「잘기머리」라는 별명을 지녔던 노장 수비수 최영일. 최영일은 일본의 스트라이커 미우라 카즈요시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최영일이 태클을 한번 하면 골프 스윙할

때의 10배 정도 분량의 잔디가 꺾여 날아왔고, 발목을 노리는 정확한 공격에 미우라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공을 받기 위해 미우라가 몸을 돌리고 자기 선 진영으로 달려갈 때에도 최영일의 정박한 스파이크 바닥은 여지없이 상대의 종아리를 향했다. 가족이나 덩치가 작은 미우라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킵 카즈」라는 애칭으로 일본 팬들에게 끔찍한 사랑을 받은 미우라는 언제든 공을 넣고 한국 팬들을 향해 자위하는 세러모니를 펼쳐 주 선수들이 가족이나 별다른 상대, 하지만 자국 팬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은 측은 하기가 했다.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도 최영일 못지 않게 활약을 했다. 브라질 출신으로 월드컵 예선전까지 귀화한 일본의 스트라이커 로페스는 문전 혼란 중에 점프하면서 팔꿈치로 이민성의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이민성은 허공에서 붕 그대로 떨어졌고, 한동안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장면을 코앞에서 목격한 김병지는 다음 번 일본 공격 때 로페스 쪽으로 공중 높이 날아오자 두 무릎과 팔꿈치를 앞세우고 돌진해 이민성의 복수를 독촉해 해주었다.

경기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기차단 버스에서 누군가가 국가대표팀의 대들보 수비수였던 조영증씨에게 물어보았



玉大福(85년 人文大卒)
조선일보 스포츠레저부 차장

다. 「꼭 축구를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 수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요?」 조영증씨는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다. 「이전 축구가 아니라 국가적인 승부다. 수비수로서는 저 눈 발목을 부러뜨리겠다는 각오로 무심게 해야 상대가 겁을 먹고 내 공을 통과할 생각을 못한다. 우리 때는 더 심하게 했다」 대충 이런 요지였다.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는 데 축구기자단 20년 가까이 한 선배가 「기분 이 좋지?」 하고 웃었다. 축구의 매력 이런 것이라? 한번 이기고 지면 그때마다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 풍류는 스포츠에서 축구가 유일하다는 얘기였다. 귀국 길의 비행기에서는 기장이 「도쿄공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축구대표팀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집에 오니 칠순이신 정모남까지 「이기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했다. 현상 취재를 했던 기자가 이렇듯 경기를 뒀던 선수들은 얼마나 호모했을까? 아직도 스포츠기사이지만 그때가 나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다.



張允美(03년 人文大卒)
CBS 사회부 기자

새벽 3시. 남들은 자고 있을 이 시간에 내 하루는 시작된다. 일어나자마자 경찰서로 직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서, 영안실 등을 돌면서 밤사이 사건, 사고, 화재 등을 정신없이 쟁가다 보면 새벽 6시, CBS 아침 뉴스인 「뉴스투데이」에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해서 선배에게 보고하고 한 숨 돌리고 나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다. 기사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이제 5개월. 인간 이하 생활을 한다고 해서 修羅인 아닌 磨羅(마로)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 수습기가 꼬리표를 떼면 나는 새내기 기자이다.

5개월 동안 경찰서 12곳을 돌고, 처음 몇 개월은 아예 경찰서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전의 대 생활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만나는 사람들도 주로 경찰들과 폭력범, 사기범, 무전 형사자들도 왔다. 사람들 만나서 질문하는 게 직업이 되다 보니 억울한 사정을 기자에게 말하려는 사람들과 기자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새내기 기자의 종횡무진 취재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 기사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을 추려내는 요령도 생겼다.

하루는 형사가 전화로 고위공무원이 경찰서 내사 운운하며 조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줬다. 형사로서 가보지 않았던 형사는 반세도록 애타고 있었고 다른 형사들까지 그 피의자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피의자에 대해 말해 주길 꺼려했다. 전화를 해 준 형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건 기록부에는 술 취한 회사원이 저지른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돼있었다. 기록부에 적힌 피의자와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고, 경찰서를 구술하며 알아보니, 폭력 혐의로 잡혀온 고위공무원이 만취한 상대에게 경찰을 때리고 자살을 조시하더니 큰 코 다칠 줄 알리고 협박을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우리 방송에 나간 뒤 여러 신문에 보도됐다. 다음 날 경정서 기록부에는 회사원으로 되어 있던 피의자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쳐 있었다.

지나치기 쉬운 사건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낼 때도 있다. 어느 날 병원 연인 간에 갈등대 들어온 사체의 사인이 수락사로 적혀 있었다. 사실 경찰서와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건은 종종 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60대 노인이 길 옆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의문점이

생겼다. 어떻게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알아보니 재개발을 앞 둔 산동네에서 길 바로 옆이 남파리진인데도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서 생긴 사고였다. 이 사실을 안 뒤 그 동네로 가서 동네주민들을 만났는데 사고가 일어났다. 6개월 사이에 그 곳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얘기는 직접 가서 얻은 성과였다. 유가족들과 예전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얘기를 듣고 구청 직원을 만나 안전시설

“ 자명종 소리보다 선배 전화소리에 눈이 확 떠지고 ”

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은 기사처리 됐다. 이후 그 동네에는 안전시설이 세워졌다. 기자 앞마당이 좀 좁고 처당이라 내 손을 잡고 부러졌던 동네 할머니 생각이 나 뿌듯했다.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비상사태가 발생했다하면 사건 장소로 택시를 돌려 세우는 일도 허다한 생활 속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다. 범인은 현장에서 다시 온다는 말만 믿고 심한사건 현장에 새벽에 나가 있던 말도 그 중

하나다. 강남 노부부 살인사건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째선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초인종을 눌러도 됐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낮에 치렀던 사건현장을 본 뒤라 오싹한 기분도 들었다. 현장 근처를 지나 는 사람들 붙잡고 사건 답답 특이한 점이 없었냐고 물어도 성과는 없고 무성다고 소리치기도 도망가는 여고생들만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길목에 혼자 남아 계속 기다리던 일이 힘들었지만 지나보니 다 추억이 됐다. 이 살인사건은 아직 경찰들에게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부경 현장에 따라가 시체 부검하는 것을 보고, 헬리콥터를 타고 수해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기자가 보지 않았더라면 겪지 못할 경험일 것이다. 물론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형사와 싸울 때도 있고, 가족이 죽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유가족에게 꼬치꼬치 핑계를 캐물 때의 심적 부담도 느낀다. 술 취한 피의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취재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고 그 기사가 언론에 조금씩 문제점이 개선되도 미제사건이던 사건이 정발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자명종 소리에는 일어나지 못해도 선배가 건진 전화소리에 눈이 확 떠지는 신입사기이지만 나중에는 우리 회사와 사회에 꼭 필요한 기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학계의 동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全在星회장

국내 최초 빠알리어 대장경 번역

“붓다의 살아있는 목소리 전하고파”

『빠알리어 경전 번역작업을 통해 석가 모니 부처가 실제로 어떤 곳에서 살았고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빠알리어(석가모니 생존 당시 민중언어) 대장경의 하나인 맞지마나까야(전5권, 중간길이의 설법모음)를 현대어로 완벽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全在星(79년 農大卒)회장. 쌍문타나까야(전11권, 짧은길이의 설법모음) 완역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인도철학회 회장을 지낸 원희범씨는 맞지마나까야 완역을 두고 『우리 나라 불교 1천6백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평했다. 학술원은 맞지마나까야의 인문학적 성과를 높이 평가해 역경으로는 유일하게 2003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하기도 했다.

성철스님은 중국어를 이중번역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초기불교 용어인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 경전을 직접 번역한 경전을 가질 때 한국불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송동문은 『표음문자인 빠알리어를 표의문자인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고 한문의 경우 논리적 축약도 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르침 자체가 왜곡되거나 오히려 더 난해해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송동문은 학부시절 농화학을 전공하면서부터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이미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학부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하면서 잦은 연행과 감시에 시달렸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망가진 때로 망가져 사회 진출은 불가능했고 점점 더 불교에 의지하게 됐다고 한다. 『그 당시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했어요. 폐결핵 3기 판정을 받고, 경찰에게



쫓기는 악몽이 매일 반복되면 때였으니까요. 그 고통을 떨치기 위해 명상에 전념하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후 어렵게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최근 내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거지성자 페터 보야야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첫눈에 납득했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흡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죠. 썩은 담근을 꺾어 먹고 있던 그에게 부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나도 붓다처럼 아나기리카(집없는 출가 수행자)로 살고 있다」고 답하더군요.』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그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거지성자」에 잘 나와 있다)

송동문은 앞으로 나머지 빠알리어 대장경 번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장서 속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소홀한 것 같아요. 모교를 비롯한 국립대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뜻 있는 동문들의 목소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南)

Noblesse Oblige

지난해 12월 19일 늦은 오후 6시.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따뜻한 겨울 콘서트와 林玉相 작품 감상의 밤」이 열렸다. 녹색병원(greenhospital.co.kr)은 일반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전 분야에 걸친 진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직업병과 산업재해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 재활센터 등을 두고 있다.

오랫동안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해온 녹색병원 梁吉承(67년 師大入·69년 醫大入)원장을 만나기 위

문은 그러나 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명됐고, 80년 복학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제명돼 모교를 졸업하지 못한 조금은 가슴아픈 기억이 있다고.

梁동문이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가리봉 오거리에 우리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근처에 공단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한 공장에서는 반 이상의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니다. 불리 작업하도록 안전장치를 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일어나게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

인데, 「당신이 조심해야지, 남은 안다지는 데 왜 당신만 다쳐?」라는

녹색병원 梁吉承원장

1백40여 평 규모의 재활센터 운영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 서

즉 「병원의 가장 폭대기 층인 7층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빈발작업을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할 경우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맞은 편에는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1백40평 규모의 재활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햇빛이 온 사방으로 비치는 데다 전망이 탁 트여있어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각 층마다 환자들이 여기도 즐기고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바닥이 나무로 된 무궁화 선풍이 있다.』고 자랑한다.

한편 67년 모교 수학교육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69년 다시 모교 의대에 입학한 梁동

문은 그러나 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명됐고, 80년 복학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제명돼 모교를 졸업하지 못한 조금은 가슴아픈 기억이 있다고.

梁동문이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가리봉 오거리에 우리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근처에 공단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한 공장에서는 반 이상의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니다. 불리 작업하도록 안전장치를 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일어나게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

인데, 「당신이 조심해야지, 남은 안다지는 데 왜 당신만 다쳐?」라는

문은 그러나 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명됐고, 80년 복학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제명돼 모교를 졸업하지 못한 조금은 가슴아픈 기억이 있다고.

梁동문이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가리봉 오거리에 우리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근처에 공단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한 공장에서는 반 이상의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니다. 불리 작업하도록 안전장치를 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일어나게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



직업병 환자 및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운데 梁원장)

건강을 지킵시다

痛風... 술 마시지 말아야

통풍이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특히 퓨린계 아미노산의 대사과정에서 분해되고 나오는 요산이 관절 주위 조직과 신장에 축적되어 관절염과 신장질환, 고혈압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기원전 5세기경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병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식생활 습관의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근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병이 되었다.

급성 발작에 의한 증상은 음주, 외상, 갑작스런 운동 등의 유발인자가 있을 후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육신거리는 통증이 마치 화농에 의한 것처럼 심하며, 실제로 화농성 관절염으로 오인되어 절개 수술을 받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관절은 엄지 발가락과 시작마디이나 발등의 다른 부위, 발목 관절, 무릎 관절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손목, 손가락 등 상지의 관절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통 급성 발작이 처음 있고 나서 한동안은 증세 재발 없이 지내다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다시 재발한 후, 재발이 반복되면서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며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엔 관절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치료에 있어 특히 식이요법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식이요법의 우선은 술을



鄭南和(82년 難大卒)
정남화정형외과의원 원장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술은 혈중 요산농도를 급격히 높이며, 급성 발작의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다. 다음은 요산 생성을 많이 하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은 육류, 그 중에서도 특히 간, 콩팥 등 내장 종류와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 종류와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을 들 수 있다.

급성 발작이 있게 되면 우선 환부를 고정시키기 위해 부목을 사용하고 병점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는 갑작스런 운동이나 장거리 보행, 관절의 충격 등을 피해야 할 것이다. 약물치료는 급성 발작시 통증과 염증 완화를 위한 것과 평소엔 혈중 요산농도 조절을 위한 것이 있으며, 진료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한다.

결론은 평소 적절한 식이요법과 금주 등 절제된 생활과 약물치료를 통해 증세의 발현을 예방함으로써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연락처 : 032-343-0494)

나의 건강법

산행과 캠핑 접목된 자연 레포츠 즐겨

朴相高(49년 工大卒) Camp Nabe 캠프호스트

나는 77세의 노년을 살고 있는 자연인, 자유인, 「산 사나이」이다. 1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누워서 죽을 것인가? 겹쳐서 살 것인가!! 늙지 않고 캠핑과 산행을 계속한 끝에 지금 「활동하는 열린 인생양성」을 위한 아토틀도 교실을 운영하며 정년 없는 인생을 활발하게 살고 있다.

나의 얼굴은 반데기요. 나의 다리는 청춘이다. 사람은 다리부터 약해진다고 한다. 중병에 걸리면 단 한 걸음도 스스로 걸지 못한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나는 이 교훈을 항상 간직한다. 병든 고뇌를 다독여준 「캠핑과 산행」.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산에 간다. 투병이란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의 건강법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우러나오는 총체적인 삶의 건강을 의미한다. 근육질만 키우는 것이 건강인가? 자연의 감성과 함께 하는 건강법, 넓게 더 넓게 살기 위하여 지금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산행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항상-캠핑을 같이 하는 자연주의 레포츠이다.

오토캠핑의 매력은 무엇보다 기동성에 있는데 집을 버리고 얼마였던 틀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삶을 변화무쌍하게 연출해 보는 것이다. 오토캠핑 자체가 운동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여행 중에 캠핑하고 캠핑 중에 여행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때 오묘한 짜릿함을 느껴준다. 사치와 게으름, 고정관념과 형식에 얽매었던 사람이 이 게임을 통해 소박한 자연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연 속에서 치유된다. 캠핑은 삶의 축소판으로 온 식구와 매니아 일행이 같이 삶을 해결하며 행동하는 소꿉놀이 게임이다.

나는 지금 건물 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한다. 아주 덥다고 번거롭고 좁지만 결국 해내는 것이다. 덥더라도 나는 어김없이 매주 휴일



마다 산행과 캠핑을 하고 있다. 눈밭에서 북극곰 캠핑을 즐기는 것이다. 어느 새 웃자라 버린 나의 자아(ego)를 산에다 버리고 또 버리지만 자아는 또 금새 자라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버려라 또 들관으로 산으로 간다.

나는 람보를 방불케 하는 탐험, 공격적 계류라 산행을 한다.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은 막힐 때도 있지만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은 내가 또 만들어 가는 길이다. 나는 내 삶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고 나간다. 나는 2년간의 해외탐험 여행도 단독으로 오지만을 끌리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 우리의 미래는 문화와 감성이 전부이다. 문화는 창조되는 것이며 삶 속에 이러한 서바이벌 문화를 만들어 가는 나의 재미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사람은 취미를 먹고산다. 그 취미에 몰입하는 즐거움 속에 건강의 보배는 묻혀 있다.

1 동 정

수 상

▲鄭鎭宇(49년) 醫大卒·모교 기
약과 명예교수)=지난 12
월 5일 한국음악협회가 수여
하는 2003 한
국음악상 대상을 받음.

▲金在鎭(55년) 法大卒·前국회
의원·한일친선
협회 부회장)=지난 12월 5
일 일본 도쿄
에서 개최된 제
7회 미국 국제

학사원 세계대회에서 한일 친선
과 문화교류 등에 기여한 공로
로 세계평화상을 받음.

▲金東吉(61년) 師大卒·경인양
행 회장)=지난 11월 30일
무역의 날 기념
식에서 중탑 산
업훈장을 받음.

▲崔鴻圭(68년) 敎大院卒·중앙
대 교수)=지난 12월 5일
남대문로 5가
세브란스병원
문화관에서 한
국생활문화회

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생활문
학대상을 받음.
▲李永叔(78년) 自然大卒·포항
공대 교수)=지난 12월 9일 인
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올해

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음.

▲姜仁仙(88년) 社會大卒·조선
일보 위성현특파원)=지난 12
월 4일 여의도 만화호텔에서
洪性依언론기금이사회가 수여하
는 제6회 홍성언론상(신문부
문)을 받음. 또 1월 9일 한국언
론재단에서 관훈클럽으로부터
제15회 최병기기자 기념 국제보
도상을 받음.

▲成世正(91년) 社會大卒·KBS
아나운서)=지난 12월 17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2003 한
국아나운서대
상 시상식에서
아나운서 특별상을 받음.

▲盧枝鎭(50기) AMP·LG화학
사장)=지난 12월 8일 서울 역
삼동 노보텔엠베서호텔에서
과학기술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올해의 테크노
CEO상」(대기업부문)을 받음.

▲李義鉉(20기 AIP·대일특수강
대 표·대림대
검임교수)=지난 12월 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서강
대에서 수여하
는 「서강 MBA를 빛낸 인물」로
선정돼 상을 받음.

▲安鎭元(6기) HPM·VTN-저
널 편집위원)=지난 12월
11일 민족문화
회가 주관하는
민족문화회 문
학상 시상식에
서 문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문학상을 받음.

이동·선임

▲金昌悅(58년) 法大卒·前방송
위원 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0일
사단법인 盧聯
張志誠선생기
념사업회 제2
대 회장에 선임됨.

▲陸榮一(60년) 工大卒·아주대
 명예교수)=최근 전국과학기술
인협회 경기지역회장에 선임됨.
▲梁承澤(61년) 工大卒·前정보
통신부 장관)=지난 12월
23일 부산 등
명령보대 제4
대 총장에 위
임함.

▲鄭玩鎭(63년) 師大卒·한국교
원대 총장)=
지난 12월 12
일 한국교원대
음악관 연구실
에서 열린 한국
환경교육학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됨.
▲安秉永(65년) 行大院卒·연세
대 교수)=지난 1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
관에 임명됨.

▲吳允晉(65년) 行大院卒·前해
병대전우회 중
앙회 총재)=최
근 사단법인 민
주주의정치철학
연구소 이사장
에 취임함.

▲吳 明(66년) 工大卒·아주대
총장·본회 부
회장)=지난 12월 28일 과학
기술부 장관
에 임명됨.

▲金炳日(67년) 文理大卒·금융
통화위원)=지난 12월 28일 기
획예산처 장관에 내정됨.

▲鄭日采(69년) 經大院卒·다산
그룹 회장)=
최근 부경대 재
경동정회 회장
에 선출됨.

▲李傳柱(71년) 工大卒·한울림
프 대표)=최근 2년 임기의 유
체기계공업학회 회장에 선임됨.
▲李熙範(71년) 工大卒·서울산
업대 총장)=
지난 12월 15
일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
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
평통 평전구협
의회 사무국
장)=최근 고
려대 기법교우
회 「高岩會」
정기총회에서

蔡東虎·盧泰元·金光洙·金聖勳교수

제9회 「한국과학상」 수상자에 선정



金光洙교수



蔡東虎교수



金聖勳교수



盧泰元교수

지난 12월 16일 과학기술부
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 제정
한 제9회 「한국과학상」 수상
자로 수학분야에 모교 수리과학
부 蔡東虎(81년 自然大卒)
교수, 물리분야에 모교 물리
학부 盧泰元(82년 自然大卒)
교수, 화학분야에 포항공대
화학부 金光洙(71년 工大卒)
교수, 생명과학분야에 모교
제약학과 金聖勳(81년 藥大

卒)교수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수학분야 수상자인 蔡교수
는 21세기 수학전반에 걸쳐
제시된 난제의 하나인 천-사
이론-히스 방정식의 비 위상
임반해를 증명함으로써 유체
의 흐름에 관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수학적 연구이론으
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물리분야 盧교수는 강유전
체 피로현상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FPM 신
소재인 BLT 박막을 개발, 강
유전체 분야와 새로운
기술을 연 업적을 인정받
아 수상하게 됐다.

화학분야 金교수는
양자화학을 이용한 전
산모사를 통해 파이 전
자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자 장치의 분자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업적을
평가받았다.

생명과학분야 수상자인 金
교수는 단백질 인자인 P38이
발생과정에서 매조자의 분화
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사
실을 발견, 생물학의 기초이
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항
암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이론
적 기초를 제시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雙)

임기 2년의 제28대 회장에 재선 임명.

▲**朴華欽**(72년 商大卒·기획예산처 장관)=지난 12월 28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됨.

▲**崔庚珠**(73년 文理大卒·중부지방국세청장)=지난 12월 29일 조달청장에 임명됨.

▲**權宰衡**(76년 美大卒·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미대 학장)=지난 12월 6일 이화여대 국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책



학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됨.

▲**李晚熙**(80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12월 4일 개발청 직위로 전환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선임됨.

▲**楊枝育**(81년 工大卒·국토연구원 연구위원)=지난 12월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에 선임됨.



▲**金秉秀**(85년 工大卒·이화여대 교수)=최근 미국 Marcel Dekker에서 발간되는 SCI 학술지인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의 편집위원에 선임됨.

▲**金在哲**(47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12월 18일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에 선임됨.

▲**徐士鉉**(47기 AMP·前파워콤 사장)=지난 11월 25일 서울 목동의 '행복한세상' 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鎮德**(53기 AMP·하나로통

신 전무)=지난 12월 1일 하나로T&I 사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지난 12월 5일 부패방지위원회 17층 대회의실에서 「국가 반부패 전략을 위한 통합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2003년도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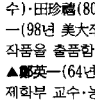


▲**張貞理**(64년 美大卒·한국고원대 교수)=지난 12월 2일 서초구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열린 「한국도자 오브제전」에 차

貞淑(75년 美大卒·동서울대 교수)·田珍禧(80년 美大卒)·尹潤一(98년 美大卒)등은 등과 함께 작품을 출품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지난 12월 16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농정혁신의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許 雄**(68년 大法院卒·모교 언어학과 명예교수·한글학회 회장)=지난 12월 20일 한글회관 강당에서 「12월의 문화



인물 金吉濤 선생 발표회」와 「우리 말글 지키기」, 위촉식 및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함.

▲**林吉鎮**(69년 工大卒·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지난 11월 2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행사의 개혁



과 혁신」이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金勳東**(69년 農大卒·수원대 총·회장)=지난 1월 3일 수원 리전호텔 대연회장서 캄보디아 「무엇을 더 구하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柄國**(70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모교 합춘후원회장)=지난 12월 12일 모교 병원내 임상학연구소



1층에서 「제7회 음악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일일차집」을 개최함.

▲**張惠容**(73년 美大卒·청주대 교수)=지난 12월 2~11일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아트센터에서 제1회 서울아트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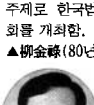


스티벌의 일환으로 「12월의 꿈—아름다운 미술이야기」란 주제로 제19회 개인전을 개최함.

▲**李永泰**(74년 行大院卒·대구미래대학 교수·한국법학회 회장)=지난 12월 12일 충북주성대학 본관 세미나실에서 「디지털시대의 법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법학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함.



▲**柳金祿**(80년 行大院卒·군산대 기획연구처장·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지난 12월 20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에서 「감사와 성과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함.



▲**李忠鎔**(82년 法大卒·정해봉



자 이사장)=지난 12월 19일 서울 광문고교 체육관에서 강동구내 소년·소녀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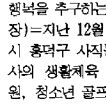
및 독거노인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함.

▲**李廷熙**(83년 經醫大卒·열린동작경제포럼 대표)=지난 12월 4일 시당문화관에서 열린 동작경제포럼 창립식을 개최함.

▲**金昱輝**(84년 音大卒·MK Jewelry 대표)=지난 12월 4~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제스트디자인전시회에 컬렉션을 전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펼침.

▲**高龍柱**(89년 師大卒·희망과행복을 추구하는 미래정치연구소장)=지난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교육주 박사의 생활체육 아카데미」를 개원, 청소년 골프 유망주 발굴 사업·특별 레슨 등을 펼침.

▲**尹昌國**(8기 AIP·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부장)=지난 12월 1일 「시민,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란 두 번



째 시집을 발행함.

(정리=安興基기자)

「인물로 본 미주한인 100년사」에 수록 인물 1백1명중 10명이 동문

최근 미주 한인인인 1백주년 뉴욕사업회는 「인물로 본 미주한인 100년사(가칭)」에 수록될 1백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뉴욕사업회는 지난 1세기 동안 한인사회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1백여 명의 인사를 선정, 그들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재미동장학 최允洙(52년 文理大卒) 초대 회장을 비롯해 안容九(51년 音大卒)前미파디움대 교수, 金昌原(49년 工大入)미주 한인인인 1백주년기념사업회장, 盧鎭堯(55년 醫大卒)前뉴욕지부동창회장, 朴京民(59

년 醫大卒)뉴잉글랜드지부동창회 명예회장, 姜慶植(59년 文理大卒)前뉴잉글랜드지부동창회장, 李憲媛(61년 醫大卒)제퍼슨대의 교수, 崔洙容(60년 商大卒)前뉴욕지부동창회장, 鄭孝亮(60년 美大卒)前필라델피아지부동창회장, 姜孝(63년 音大入)솔리아드음대 교수 등 10여 명의 동문이 포함돼 있다.

뉴욕사업회는 지역사업회장 및 추천 인사로 구성된 16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미국 전지역사업회별로 추천한 1백53명의 후보를 세심히 검토한 후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姜)



華燭

동창회관 5층 판악홀에서 화축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한주민(97년 工大卒)·우예 씨=1월 17일 14시.
- 공상휘(96년 保大院卒)·장윤일 씨=1월 31일 14시.
- 윤광기(97년 行大院卒)·고경희 씨=2월 7일 15시 30분.

모교 사랑 실천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 : 2003년 10월 6일 ~ 2003년 11월 19일 · 일반 : 2003년 10월 3일 ~ 2003년 11월 17일〉

회 장 단

▲ 부회장 차원환=100만원
▲ 부회장 李龍完=100만원

평생회비

▲ 강정구 (69년 音大卒)=20만원
▲ 김상열 (48년 藥大卒)=50만원
▲ 김석희 (3기 AIC)=20만원
▲ 김세환 (73년 文理大卒)=20만원
▲ 김양일 (60년 工大卒)=20만원
▲ 김영중 (68년 藥大卒)=20만원
▲ 김용식 (74년 工大卒)=20만원
▲ 김중경 (77년 人文大卒)=20만원
▲ 김진태 (75년 法大卒)=20만원
▲ 마국철 (72년 工大卒)=20만원
▲ 박세직 (60년 文理大卒)=50만원
▲ 백원기 (75년 法大卒)=20만원
▲ 엄성연 (92년 農生大卒)=20만원
▲ 위종진 (95년 師大卒)=20만원
▲ 유한동 (65년 文理大卒)=20만원
▲ 이봉현 (60년 師大卒)=20만원
▲ 이육경 (85년 人文大卒)=20만원
▲ 이원호 (78년 工大卒)=20만원
▲ 이재관 (77년 農大院卒)=50만원
▲ 이종민 (79년 農大卒)=20만원
▲ 이준호 (89년 社會大卒)=20만원
▲ 이진걸 (83년 醫大卒)=20만원
▲ 이창택 (64년 農大卒)=20만원
▲ 이희열 (71년 文理大卒)=20만원
▲ 임동진 (66년 法大卒)=20만원
▲ 정하승 (98년 工大卒)=20만원
▲ 조항관 (60년 工大卒)=20만원
▲ 최선일 (78년 音大卒)=20만원
▲ 하계상 (78년 工大卒)=20만원
▲ 한상겸 (57년 工大卒)=50만원
▲ 허영환 (77년 工大卒)=20만원
▲ 홍기준 (73년 工大卒)=20만원

▲ 홍두루비 (81년 醫大卒)=20만원

이 사

◇ 사회과학대학

▲ 박종국 ▲ 이충근

◇ 간호대학

▲ 박명자 ▲ 이예주 ▲ 조동란

◇ 경영대학

▲ 권기철

◇ 공과대학

▲ 고원호 ▲ 김 철 ▲ 김기협
▲ 김노수 ▲ 김동식 ▲ 김동주
▲ 김병민 ▲ 김상주 ▲ 김선홍
▲ 김송평 ▲ 김영기 ▲ 김일진
▲ 김재희 ▲ 김재영 ▲ 김종구
▲ 김충세 ▲ 김태준 ▲ 김호성
▲ 남상국 ▲ 박상훈 ▲ 박찬모
▲ 배영호 ▲ 손 국 ▲ 송병호
▲ 신국병 ▲ 신현우 ▲ 오병태
▲ 윤봉태 ▲ 윤인섭 ▲ 이계환
▲ 이근호 ▲ 이기준 ▲ 이상규
▲ 이윤우 ▲ 이장건 ▲ 이창우
▲ 이충수 ▲ 임병주 ▲ 장기욱
▲ 전용진 ▲ 주종원 ▲ 지철근
▲ 최동일 ▲ 최영택 ▲ 최종영
▲ 한수안 ▲ 황기승

◇ 농업생명과학대학

▲ 권오준 ▲ 권일중 ▲ 김석동
▲ 김영진 ▲ 김진팔 ▲ 김홍기
▲ 윤대섭 ▲ 이지섭 ▲ 한정남

◇ 문리과대학

▲ 고 건 ▲ 김두영 ▲ 김병익
▲ 김상호 ▲ 김광호 ▲ 김용일

▲ 김재실 ▲ 김하진 ▲ 노건일
▲ 노재식 ▲ 민영기 ▲ 박기덕
▲ 박성훈 ▲ 박용환 ▲ 박호근
▲ 배기성 ▲ 우남근 ▲ 윤옥영
▲ 이갑주 ▲ 이규철 ▲ 이상현
▲ 이성덕 ▲ 이수용 ▲ 이정운
▲ 이종렬 ▲ 이종하 ▲ 조기웅
▲ 최정락

◇ 미술대학

▲ 박원모 ▲ 권순형 ▲ 이종복
▲ 조영철 ▲ 주민숙

◇ 법과대학

▲ 장용구 ▲ 강익영 ▲ 고학봉
▲ 김정철 ▲ 김종구 ▲ 김태현
▲ 박부찬 ▲ 박일재 ▲ 박정규
▲ 박충근 ▲ 박효성 ▲ 서 성
▲ 서규택 ▲ 서태영 ▲ 심상병
▲ 안강민 ▲ 안영욱 ▲ 안용득
▲ 오세빈 ▲ 원희룡 ▲ 이경하
▲ 이국주 ▲ 이대순 ▲ 이동범
▲ 이범주 ▲ 이선우 ▲ 이성로
▲ 이세복 ▲ 이영주 ▲ 이용우
▲ 이응용 ▲ 이광수 ▲ 이철규
▲ 이현범 ▲ 임인석 ▲ 정광진
▲ 정기영 ▲ 정민수 ▲ 정한상
▲ 조남돈 ▲ 조철일 ▲ 주한희
▲ 지홍식 ▲ 진 영 ▲ 차철순
▲ 하창우 ▲ 한경구 ▲ 한광수
▲ 한정길 ▲ 현천욱 ▲ 홍종현
▲ 황보중 ▲ 황창섭

◇ 사법대학

▲ 김덕순 ▲ 김병준 ▲ 김찬근
▲ 김홍섭 ▲ 문상호 ▲ 박희숙
▲ 오민수 ▲ 오민혜 ▲ 유지표
▲ 이숙영 ▲ 이영수 ▲ 최재근
▲ 하순봉

◇ 상과대학

▲ 강신종 ▲ 권해태 ▲ 김광선
▲ 김근태 ▲ 김동영 ▲ 김성렬
▲ 김현근 ▲ 김현주 ▲ 김호식
▲ 박해룡 ▲ 박흥기 ▲ 성기호
▲ 손정삼 ▲ 송국현 ▲ 송진호
▲ 이상아 ▲ 이승삼 ▲ 이인원
▲ 이준용 ▲ 이한삼 ▲ 장동익
▲ 조문규 ▲ 최문철 ▲ 최용락
▲ 탁갑근 ▲ 현해수 ▲ 황영기

◇ 수의과대학

▲ 김동준 ▲ 백문영 ▲ 신현일
▲ 이상민 ▲ 이재철 ▲ 임영일
▲ 임영철 ▲ 장천석

◇ 약학대학

▲ 고대승 ▲ 권경곤 ▲ 김규호
▲ 김상조 ▲ 김인수 ▲ 김태근
▲ 남승국 ▲ 노한성 ▲ 우종근
▲ 이계준 ▲ 정순간 ▲ 정지석
▲ 홍정근

◇ 음악대학

▲ 박인수

◇ 의과대학

▲ 김경식 ▲ 류지문 ▲ 문진수
▲ 문대준 ▲ 박인서 ▲ 박정범
▲ 박찬용 ▲ 송민준 ▲ 신순현
▲ 신현호 ▲ 이광호 ▲ 이명철
▲ 이부영 ▲ 이순택 ▲ 이윤호
▲ 이정삼 ▲ 정영덕 ▲ 정종환
▲ 지영일 ▲ 최 용 ▲ 한민희
▲ 한홍우

◇ 치과대학

▲ 강영민 ▲ 강대국 ▲ 김계준
▲ 김기국 ▲ 김현정 ▲ 박광선
▲ 서현종 ▲ 양원수 ▲ 이순규
▲ 이종렬 ▲ 임재근 ▲ 장영정

◇ 경영대학원

▲ 김선대 ▲ 김정태 ▲ 문국현
▲ 배동훈 ▲ 우장규 ▲ 이준학

◇ 보건대학원

▲ 이양재 ▲ 조유정

◇ 신문대학원

▲ 김기도 ▲ 유일상

◇ 행정대학원

▲ 김기병 ▲ 박정환 ▲ 박용덕
▲ 손선규 ▲ 최계순

◇ 환경대학원

▲ 오무근

일 반

◇ 인문대학

▲ 김예성 ▲ 김민배 ▲ 김정호
▲ 김진영 ▲ 민동홍 ▲ 박지문
▲ 서미석 ▲ 손예철 ▲ 윤해섭
▲ 정창수 ▲ 최경호 ▲ 한규철
▲ 홍미애

◇ 사회과학대학

▲ 감암구 ▲ 김정재 ▲ 박대환
▲ 구용환 ▲ 구태연 ▲ 김 원
▲ 강경민 ▲ 강경수 ▲ 김광범
▲ 김동범 ▲ 김서중 ▲ 노정석
▲ 류상용 ▲ 류호영 ▲ 박상훈
▲ 박용현 ▲ 박주영 ▲ 신종규
▲ 신범수 ▲ 안재용 ▲ 안호영
▲ 연규진 ▲ 우태영 ▲ 우혜영
▲ 유준열 ▲ 윤기철 ▲ 이두석
▲ 이상용 ▲ 이정현 ▲ 이종현
▲ 이혜승 ▲ 이혜승 ▲ 임병환
▲ 임대영 ▲ 장진우 ▲ 정환빈



동창회보를 읽고

과학·상식·기업정보 많았으면...

金基寧(79년 社會大學)킹로드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동창회보를 받아 보고 있는 자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번 배달되는 동창회보를 읽는 즐거움이 새롭다. 일면을 장식하는 화보에서 동문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보고, 사설과 칼럼, 인터뷰 기사 등을 읽으면서 새로운 식견을 갖게 되며, 훈훈한 장학금 전달 소식이나 모교의 발전상을 접하면서 동문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80년대부터 들어온 IT혁명으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으로 무장한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불만하게 하고 있으며, 세오징과 오락도를 넘어 삼삼선(38세이먼) 명에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이 거론되는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21년 공직의 율타리를 나와 생업을 일구며 생존을 위한 도전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동창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할 때도 많지만 동창회보에 실려오는 신선한 소식을 접하고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덧 생의 활력을 찾게 되는 것 같아 좋다.

차에 편집부의 요청에 따라 동창회보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나는 몇

가지들 순화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먼저 동창회보가 동문과 가족들이 푸근한 마음으로 즐겨 찾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법이나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생활상식, 기업정보, 건강정보 등 유익한 생활정보를 많이 실어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면이 부족하면 동창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파트게 변하는 입시제도나 학교 발전방향 등 관심분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주고 주제별로 자유토론의 장을 제공하면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고 여론형성과 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동창회보의 편성이 딱딱하지 않고 형식에 구애없이 재미 있다 자유로웠으면 하는 느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너무 강조하거나 중요인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인사·동정란은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 소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동문들의 삶이라 생각되므로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나 직장생활과 오지에서 묵묵히 봉사의 삶을 사는 동문들



의 모습을 비추어주었으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총동창회와 모교에 바라는 것은 도서관과 강당 등 시설을 포함해 캠퍼스를 동문들에게 활짝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수회관이나 동창회관을 동문들이 결연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면 동문증과 명예동문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췌록 2004년 새해에는 모교 동창회보가 동문들이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찾고 동문과 가족들의 활발한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 필요하다

李和玲(81년 家政大學)한국유희카드 대외관계부 부장

브랜딩, 재창조, 이미지, 디자인...

이제는 모든 제품의 내용과 성능이 디자인으로 포장되는 시대다.

디자인은 그 제품의 성격과 이미지를 규정지으며, 사용자의 선택권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양에서 질적인 삶으로 다가갈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해간다. 디자인은 느낌, 즉 색깔이며 이미지다.

요즘 시청률이 50%를 웃돌아 화제작이 되고 있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나도 가끔 즐겨본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음식의 다양함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

었다고 한다.

신선한 재료의 독특한 혼합과 손맛이 빛어낸 궁중음식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각적인 배열로 완성되는 장면을 지켜볼 때 나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시각적인 효과는 다른 감각, 즉 미각에도 영향을 주며 효과를 더해준다. 디자인은 '마무리'이며, 본래 지난 맛의 강도를 다른 차원에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동창회보를 읽고」에 대한 원고창작을 받고, 회보를 둘러보며 느낀 점을 공유하기에 앞서 디자인에 대한 강조를 해보았다. 왜냐하면, 내용을 읽기에 앞서 조금 어지럽고, 복잡하고, 산만한 구성으

로 좋은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파악하는데 공연히 어려운 것 같은 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진의 크기 및 배열, 이미지의 선택, 폰트 타입 및 크기 등까지 하나하나 더 세심히 결정하고 검토한다면, 시대상대에 맞는 디자인 요소를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간결한 가운데 포인트 요소가 있고, 세련되며 접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음식, 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주거공간, 도시계획 등등이 모두 디자인의 특성을 중요시하듯, 우리의 동창회보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외적인 구성면에서는 모교 미래를 줄임한 동문들의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 칭찬보다는 이완이든 비판을 많이 해달라는 청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연히 트집을 잡아 보았다.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창회보」로 사행시를 지어본다.

「동적인 동문들의 참여와/ 창의력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롭고 새로운 느낌의 내용을 전해주며/ 보리빛 향기 같은 추억도 뽐낼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되길...

平生 한번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에는

- * 후배들의 장학사업
- * 동문 사회의 가교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평생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월 반	20,000원	200,000원
일 사	70,000원	500,000원

납부 방법: 동창회보에 삽지되어 있는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두가지 TYPE으로 삽지되어 있으며 납부후에는 지로용지가 삽지되지 않습니다.

* 단 한번 평생회비 납부로 회비납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 「조용은형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동문님 은 선원/종원년도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동문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이 회비가 납부되지 않도록 각종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동문님께서는 연말에 다양한 정보기 수록되어있는 포켓을 다이아리를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